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32)

연세동문회보

[월간] 제512호 2016/10

발행인 편집인 겸 인쇄인·박삼구 WWW.YONSEIN.NET 창간 1932년 3월 1일(등록번호 라 6855)

세브란스병원 동문전용전화
02-2228-0303
(연세연세)

2016 연고전 1승2무2패…이겨본 것이 언제던가?

야구 3:4로 패배

럭비 27:26으로 승리

농구 71:71로 무승부

축구 1:3으로 패배

빙구 3:3으로 무승부

교문에서 열린 폐막제

언더우드 서거 100주년 기념 및 선교상 시상식

10월 12일 오후 3시
모교 백주년기념관

연세동문장학회 제16기 장학생 선발

동문들의 연세사랑으로 설립된 연세동문장학회가 제16기 장학생을 선발한다.

선발된 장학생들은 졸업시까지 등록금 전액과 매월(1,8월 제외) 교재비 50만 원을 지원 받는다. 〈관련 안내 4면〉

총동문회장배 골프대회 화창한 날씨에 하나된 연세사랑

대회에 앞서 참가한 동문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제14회 연세사랑 총동문회장배 골프대회가 9월 5일 이스트밸리 컨트리클럽에서 2백30여 명의 동문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는 박삼구 총동문회장, 김용학 모교 총장을 비롯해 차일환 동문(전기 55입) 등 원로동문들과 1백40여 명의 80년대 학번 동문들이 참가했다. 〈관련 기사 3면〉

아 카 라 카

언더우드 서거 100주년. 불모의 땅에 연세 뜻 심은 숭고한 정신 깊이 새깁니다.

○

2016 연고전 1승2무2패 기록. 우리에게 경계 대상 1호는 습관성 역전패.

○

총동문회장배 골프대회 성료. 날씨 좋고, 샷 좋고…함께 외친 "연세사랑"

서거 100주년 맞은 언더우드 - 9면 / 연고전 화보 - 14면 / 김효은 주세네갈 대사 - 16면

발행처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동문회관 4층 · 전화 02-365-0631~4 · 팩스 02-365-0635 · yonsein@yonsei.ac.kr
사무총장 정규만 | 만든사람들 | 출판담당부회장 신상민/출판분과위원장 정연석/사무국장 김정현/편집장 박원엽/기자 김지혜, 백진열/광고 박차경/미술 편집 김미란/인쇄 (주)조광프린팅

정기 연고전 석패…역대 전적은 18승10무18패로 동률

9월 23일 오전 10시 잠실 야구장에서 정기 연고전 개막식이 열렸다.

2016년 정기 연고전이 1승2무2패로 막을 내렸다. 모교는 럭비에서 소중한 1승을 챙겨 승리의 기쁨을 안았고, 경기내내 주도권을 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구와 아이스하키는 무승부를, 야구와 축구는 안타깝게도 역전패했다.

5개부 선수들은 전 경기에서 선취점을 내며 짜릿함 속에 리드했지만, 아쉬운 경기로 끝났다. 역대 전적은 18승10무18패로 무승부가 됐다.

하지만, 경기장을 가득 메운 연세인의 파란 물결과 뜨거운 함성, 동문 선배들의 힘찬 응원열기 속에 진정한 연세의 파워를 느낄 수 있었다.

특히, 84~87학번 동문들은 응원복까지 맞춰입고 나와 재학생 응원단 못지않은 실력을 뽐내며 고대를 압도하는 응원을 이끌었다. 하늘에 띄운 에드벌룬도 유쾌한 메시지와 함께 연세인의 특별함을 더했다. 이제 승리에 목마르다. 필승! 전승! 압승! 2017년 정기 연고전 승리를 기원한다.

올해로 51년의 역사를 맞이한 정기 연고전, 9월 23일 잠실 야구장에서 개막식과 함께 시작된 첫 야구 경기에서 모교는 3회초 3점을 먼저 획득했다. 야구의 승리를 예감했으나, 2점을 내주고, 또 2점을 내주며, 아쉽게 3대4로 패했다.

오후 3시 열린 농구 경기는 초반부터 리드하며, 10점 이상 큰 점수차가 벌어지기도 했지만, 4쿼터에서 고대의 추격을 막지 못하고, 71대71로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했다.

우세한 전력으로 승리를 기대했던 아이스하키마저도 3대3 동점으로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면서, 첫날 2무1패를 기록, 둘째날 경기, 럭비와 축구의 승리를 염원했다.

9월 24일 목동 주경기장에서 열린 럭비 경기에서 드디어 모교가 27대26으로 첫 승리를 거뒀다.

경기 시작 7분 만에 트라이 성공으로 5점을 획득했고, 컨버전 킥을 성공하면서 2점 추가 득점으로 7대0. 그러나 고려대의 트라이와 컨버전 킥 성공으로 경기는 7대7 동점. 모교가 페널티킥을 성공하면서 10대7로 다시 3점 차로 앞서 나가며 전반전이 끝났다.

후반전, 격렬한 몸싸움이 계속되던 중, 고려대의 트라이와 컨버전 킥 성공으로 10대14로 역전됐다. 그러나 모교가 트라이를 성공시키며 재역전했고, 컨버전 킥을 성공해 17대14로 다시 앞서 나갔다. 이후 모교가 페널티킥과 트라이, 컨버전 킥 성공으로 27대14로 크게 앞섰다. 그 후, 고려대가 트라이와 컨버전 킥에 성공하면서 27대21로 따라왔고, 이어 트라이에 성공하면서 5점을 득점했지만 컨버전 킥에는 실패해 27대26으로 모교가 승리를 거뒀다.

마지막 축구 경기에서 전반 16분, 모교가 프리킥을 슈팅으로 연결하며 첫 골을 터뜨렸다. 그러나, 고려대의 역습에 다소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골키퍼의 선방으로 실점 위기를 넘기기도 했으나, 끝내 점수를 내주며 1대3으로 패했다.

토요일 저녁 6시30분부터 모교 정문에서 폐막제가 열렸다. 81~87학번 동문 선배들이 기금을 모아 준비한 맥주와 간단한 안주를 후배들에게 직접 나눠주며, 선후배의 우애를 다지는 정겨운 자리가 되었다.

폐막제의 열기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뜨거웠다. 정문에 설치된 무대에 응원단과 총장 및 교무위원들이 올라 다함께 열띤 응원전을 펼치며 신명나는 연고전 축제에 더욱 빠져들었다.

〈관련 화보 14면〉

5개부 운동선수 및 학생단체 격려의 밤

응원단장, 김용학 총장, 박삼구 회장, 방열 농구협회장, 방상길 수석부회장(사진 앞줄 왼쪽부터)이 아카라카를 외치고 있다.

총장초청 연고전 격려의 밤이 9월 8일 오수 6시 총장공관에서 열렸다. 육동원 학생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한인철 교목실장의 기도로 시작했다.

김용학 총장은 "팀원 모두가 하나 되어 초월적 상태로 연고전을 준비하자"고 인사말을 했다. 박삼구 총동문회장은 "연고전이라는 중압감을 떨쳐내고 여러분의 실력을 온전히 발휘해서 연세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승리의 기쁨을 전해주길 바란다"고 격려사를 했다. 박갑철 연세체육회 회장을 대신해 방상길 수석부회장이 격려사를 대독했다.

김용학 총장과 박삼구 총동문회장, 방상길 연세체육회 수석부회장이 5개 운동부 주장과 학생단체 대표 및 84~87학번 동문응원단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 참석한 동문들은 응원단의 구호에 맞춰 아카라카를 제창하며 연고전 승리를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용학 총장 및 교무위원, 박삼구 총동문회장, 김용순·김정수 수석부회장, 김호용·오경은·백일수 상임부회장, 정규만 사무총장과 연세체육회 임원단, 84~87학번 동문응원단 및 5개 운동부와 학생단체 등 3백여 명이 참석했다.

총동문회장 초청 연고전 기념만찬

2016년 정기 연고전을 마치고 5개 운동부 감독 및 선수들, 응원단과 소나기, 총학생회 등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총동문회장 초청 연고전 기념만찬'이 9월 24일 오후 6시30분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용학 총장과 교무위원들, 총동문회 김용순·김정수 수석부회장, 유병률·손흥규·황의돈·오경은 상임부회장, 정규만 사무총장을 비롯해 연세체육회 박갑철 회장 및 임원단, 각 운동부 OB와 동문응원단, 재학생 등 3백여 명이 참석했다.

박삼구 총동문회장을 대신해 김정수 수석부회장이 "뼈를 깎는 반성으로 앞으로의 승리를 준비하자"고 인사말을 했다. 김용학 총장은 "국경일처럼 학경일을 만들어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등 더 나은 연고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격려사를 한 후 연고전에서 최선을 다한 운동부와 학생단체 대표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 박갑철 연세체육회장은 "오늘의 패배를 반성하자"며 모교 및 동문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오경은 상임부회장의 건배 제의로 만찬을 함께한 참석자들은 아카라카를 제창하며 내년 연고전 승리를 다짐했다.

2016 정기 연고전에서 혼신의 힘을 다한 선수들을 격려하며
내년에는 더 많은 연세인들의 하나된 함성으로 승리합시다

금호아시아나 박삼구(경제 63입) 회장
아세아시멘트 이병무(경영 59입) 회장
MOORIM 이동욱(상학 67입) 회장
우리나라 우리은행
한화호텔&리조트

문과대학 동창회 / 이과대학 동창회 / 법과대학 동창회 / 음악대학 동창회 / 생활과학대학 동창회 / 의과대학 동창회 / 치과대학 동창회 / 간호대학 동창회 /
경영전문대학원 동창회 / 교육대학원 동창회 / 공학대학원 동창회 / 보건대학원 동창회 / 여자동창회 / ROTC 동창회 / 연세라이온스클럽

굿샷, 나이스 버디 … "우리는 연세" 합창

80년대 학번 대거 참여…남자부 우승 이호기 동문, 여자부 우승 이소정 동문

1 왼쪽부터 박삼구 회장, 김용학 총장, 이중명 수석부회장, 박창일 법인 이사가 시타를 하고 있다. 2 경기에 앞서 정구종 상임부회장, 이재용 교학부총장, 이중명 수석부회장, 김용학 총장, 박삼구 회장, 박창일 법인 이사, 정규만 사무총장, 강병식 동문(왼쪽부터)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3 차일환 동문이 건배를 제의하고 있다. 4, 5 박삼구 회장이 남자부 우승을 차지한 이호기 동문과 여자부 우승을 차지한 이소정 동문에게 트로피를 전달하고 있다. 6 유정현 동문(사진 오른쪽)의 진행으로 이중명 수석부회장(사진 가운데)이 헤드셋 경품을 김병관 동문(사진 왼쪽)에게 전달하고 있다. 7 행사를 마무리하며 김정수 수석부회장의 선창에 따라 모든 동문들이 아카라카를 제창하고 있다.

〈1면 골프대회에서 계속〉

경기에 앞서 동문들은 기념사진을 촬영했으며, 총동문회 박삼구 회장, 이중명 수석부회장, 김용학 총장, 박창일 모교 법인 이사가 시타를 했다.

대회는 11시40분부터 샷건 방식으로 동·서·남 코스에서 동시에 진행됐고, 동문들은 화창한 날씨 속에 골프를 즐겼다.

경기 후 유정현 동문(성악 86입·전 국회의원)의 사회로 시상식 및 만찬이 진행됐다.

박삼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 여성 동문들을 비롯해 많은 동문들이 참가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동문 모임으로 연세사랑을 나누자"고 말했다. 김용학 총장을 대신해 이재용 교학부총장은 "지금 우리는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새로운 혁신과 도전으로 발전하는 모교를 위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축사했다.

시상에 앞서 차일환 동문은 "연세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동문이 되자"며 건배를 제의했다.

경기 결과 남자부 우승은 이호기 동문(법학 81입)이, 여자부 우승은 이소정 동문(식영 87입)이 차지했다. 메달리스트는 조석일(경영 76입)·안현진(식생활 84입) 동문이, 준우승은 김학수(경영 71입)·강정선(식영 87입) 동문이 받았다. 또, 오기호 동문(경영 83입)과 정수라 동문(체교 83입)이 남녀 롱기스트에 올랐으며, 권성환 동문(치의학 91입)이 니어리스트를 차지해 동문들의 부러움을 샀다. 이날 아쉬운 경기를 펼친 김창수(행정원 79입)·문라경(기악 85입) 동문이 행운상을 받았다.

어느 대회보다 많은 협찬으로 풍성한 대회가 됐으며, 경품들은 추첨을 통해 동문들에게 전달됐다.

모든 순서를 마친 동문들은 김정수(경영 69입) 수석부회장의 선창에 따라 '아카라카'를 제창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골프대회 참가자

(가나다순)

△강미은(영문 84입) △강병식(사학 64입) △강성광(공학원 13입) △강성만(화공 70입) △강신정(경영원 12입) △강정선(식영 87입) △강종수(건축 86입) △강철구(건축 65입) △고영준(응통 95입) △고창범(사회 83입) △곽기웅(기계 85입) △구태욱(화공 86입) △구호림(경영 82입) △권성환(치의학 91입) △권준형(경영 82입) △권현진(식생활 83입) △김경진(경제 82입) △김광희(응통 87입) △김귀연(불문 83입) △김규명(경영 75입) △김문숙(성악 87입) △김미란(성악 84입) △김민수(경영 82입) △김병관(행정 81입) △김병희(물리 81입) △김상범(화학 85입) △김상학(행정 87입) △김상현(기계 84입) △김성옥(언홍원 00입) △김성일(법학 81입) △김성훈(의류 92입) △김소연(사회사업 83입) △김소희(간호 84입) △김수연(간호 85입) △김수희(간호 84입) △김승환(법학 73입) △김여은(주생활 81입) △김영석(신방 73입) △김영진(경영 75입) △김왕열(법학 81입) △김용완(경영원 08입) △김용진(식공 84입) △김용학(사회 73입) △김일(응통 89입) △김재종(생화학 81입) △김정수(경영 69입) △김정옥(식생활 84입) △김정하(기악 85입) △김정희(법학 84입) △김중곤(정외 70입) △김지원(체교 84입) △김진아(식생활 84입) △김진정(체교 86입) △김창수(경제 82입) △김창수(행정원 79입) △김창재(식공 84입) △김충남(금속 83입) △김태우(경영 87입) △김태준(행정원 83입) △김학수(경영 71입) △김현석(경영 89입) △김현선(행정원 93입) △김형수(건축 83입) △김형태(의공 84입) △김혜련(신방 82입) △김혜림(영문 86입) △김호원(화학 81입) △김희수(전산 85입) △나창규(경제원 10입) △나철균(언홍원 95입) △남규석(응통 87입) △남미우(의생활 81입) △노수린(정외 87입) △류근선(경영원 11입) △류영진(교육 87입) △문라경(기악 85입) △민유태(행정 74입) △민지홍(경영 82입) △박경남(행정 83입) △박기원(정외 81입) △박남근(천기 78입) △박남선(작곡 86입) △박명호(공학원 10입) △박병목(경영원 06입) △박병언(기계 92입) △박삼구(경제 63입) △박상수(금속 85입) △박선미(기악 84입) △박선민(신방 82입) △박성서(생물 71입) △박완수(식공 84입) △박원근(기계 82입) △박정구(경제 82입) △박정태(언홍원 12입) △박지숙(도서관 83입) △박창수(경영 86입) △박창일(의학 66입) △박채전(경제 82입) △배재익(정외 83입) △백승진(중문 84입) △변미경(독문 83입) △소승현(행정 86입) △손도수(보건원 04입) △손재민(생화학 81입) △송강아(성악 87입) △송미경(기악 85입) △송석원(환경 86입) △신인호(경영 84입) △안상욱(사회 85입) △안성기(정경원 04입) △안윤희(심리 82입) △안종남(경영 78입) △안현진(식생활 84입) △안형준(식공 82입) △양진석(경제 82입) △오경은(건축 72입) △오기호(경영 83입) △오성혜(종음 75입) △오태영(경제 92입) △우경식(중문 84입) △우춘희(간호 85입) △유갑열(정경원 07입) △유병률(지질 66입) △유선영(주생활 80입) △유승림(신방 82입) △유영석(경제원 11입) △유원일(생화학 82입) △유인이(경영 82입) △유재연(불문 82입) △유정현(성악 86입) △유지창(화공 78입) △윤성우(식공 82입) △윤용호(정경원 91입) △윤은철(경영원 06입) △윤재민(식공 84입) △윤정희(간호 85입) △이경재(경영원 83입) △이경하(경영원 99입) △이광현(전기 87입) △이길우(컴퓨터 97입) △이남규(전산 84입) △이무헌(교육 68입) △이봉락(교육 81입) △이상은(법무원 12입) △이상훈(경영 87입) △이석봉(법무원 08입) △이석영(금속 70입) △이소정(식영 87입) △이수섭(경영원 79입) △이영경(의생활 80입) △이영주(생화학 84입) △이영훈(성악 87입) △이용무(공학원 89입) △이용훈(경제 84입) △이우열(식공 71입) △이원섭(경영 84입) △이의린(체육 71입) △이재영(행정 81입) △이재용(전자 73입) △이정금(경영원 06입) △이정화(기악 84입) △이종국(법무원 03입) △이중명(건축 62입) △이창재(전자 81입) △이현숙(수학 83입) △이현주(간호 85입) △이혜영(신방 83입) △이호근 △이호기(법학 81입) △이효희(문헌 89입) △임완택(경영원 06입) △임인옥(생화학 69입) △임일우(경제 87입) △임재홍(건축 76입) △임혜영(도서관 83입) △임흥순(경영원 86입) △임희진(교음 83입) △장수용(경영원 95입) △장승원(정외 84입) △장영석(전기 87입) △장정열(전산 84입) △장지훈(전기 84입) △전용준(영문 71입) △정구종(국문 63입) △정규만(행정 66입) △정문규(치의학 70입) △정병규(경영 81입) △정수라(체교 83입) △정순규(토목 69입) △정유정(식영 87입) △정인석(중문 83입) △정재교(경제원 08입) △정탁무(경제 87입) △정해춘(화공 86입) △정헌하(의학 82입) △조광순(신방 82입) △조만희(환경 87입) △조석일(경영 76입) △조용근(경제원 10입) △조종길(경제 77입) △조혁진(전산 84입) △주민호(정보원 13입) △차일환(전기 55입) △최상우(경영원 06입) △최영호(공학원 86입) △최중배(도서관 83입) △최태림(식공 88입) △최태영(물리 83입) △하미화(작곡 86입) △하주연(기악 86입) △하지영(경제원 00입) △한병호(교육 81입) △한상민(전기전자 98입) △한상수(행정 81입) △한은주(전산 84입) △허숙(기악 85입) △홍선희(연신원 10입) △홍영성(철학 71입) △홍정미(물리 81입) △황보환(사회 84입) △황성택(법학 81입) △황의돈(체육 71입)

'한국의 쉰들러' 현봉학 박사 동상 건립 추진

한국전쟁 흥남철수 작전에서 미군을 끈질기게 설득해 군수물자를 버리고 피란민을 수송선에 태워 10만여 명의 목숨을 구한 '한국의 쉰들러' 현봉학(의학 44졸·사진) 박사의 동상이 건립된다.

국가보훈처는 현 박사를 '12월의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한 데 이어 현추모(현봉학 선생님을 추모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동상 제작을 제안했다. 보훈처는 동상 건립비의 30%인 4천여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1억 원은 세브란스와 현추모가 모금키로 했다. 동상은 12월 남대문 세브란스 빌딩 앞에 세워질 예정이다.

서경배 상임부회장, 사재 3천억 원 출연해 과학재단 설립

서경배(경영 81입·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사진) 상임부회장이 9월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학재단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사재 3천억 원을 출연해 '서경배과학재단' 설립 계획을 밝힌 서 상임부회장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늘 꿈꿔왔다"며 "기초과학의 발전을 위해 창의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서경배과학재단'을 통해 그 꿈에 한 걸음 다가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경배과학재단은 생명과학 분야의 국내외 한국인 신진 연구자 3~5명을 매년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해 과제당 5년 기준으로 최대 25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 11월 과제를 공고하고, 내년 6월쯤 지원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 이학수 동문 취임

한국수자원공사 제14대 사장에 이학수 동문(행정 80입·사진)이 취임했다.

이학수 신임 사장은 1987년 한국수자원공사에 입사한 이후 감사실장, 도시환경사업본부장, 부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그동안 물 분야 전문가이자 행정가로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 이 사장은 취임사에서 "국내 유일의 물 전문 공기업으로서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신용한 전 청년위원장, '최고 국민대상' 수상

신용한(경영 88입·사진) 전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이 9월 2일 서울 라움아트센터에서 열린 '2016 대한민국 최고 국민대상' 시상식에서 일자리 창출 등 국가 청년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 청년발전 공로 대상'을 받았다.

신용한 전 위원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것이 수상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앞으로도 국정 경험을 살려 국가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선우 선수, 제38회 KLPGA 챔피언십 우승

배선우(체교 13입·사진) 선수가 9월 11일 이수그룹 한국여자프로골프 챔피언십에서 우승했다.

최종합계 16언더파 2백72타를 기록한 배 선수는 김지영 선수를 연장에서 꺾고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지난 5월 E1 채리티 오픈에서 생애 첫 우승 후 시즌 2승째를 챙기며 올 시즌 5번째 다승자가 됐다. 안정적인 샷으로 꾸준한 성적을 내온 배 선수는 우승 상금 1억6천만 원을 보태 상금랭킹 4위로 올라섰다.

(재)연세동문장학회 제16기 장학생 선발 공고

- **자격** ①모교에서 최소한 3학기 이상을 수료한 자로서 평량평균 3.75 이상(4.3 만점)이며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자(기초학문 전공자 우선).
  ②주요 국가고시 및 공인회계사·변리사 시험 등의 1차 합격자 중 평량평균 3.0 이상(4.3 만점)으로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자.
- **신청기간** 10월 31일(월) 오후 3시까지 ● **접수장소** 각 단과대학 사무실
- **문의** 동문장학회(02-365-0631~4), 장학복지팀(02-2123-2128)

모교, 최근 대학평가에서 제자리 걸음

모교는 최근 대학평가에서 동문들의 기대와 달리 낮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모교에 대한 평가는 최근 답보상태이다.

무엇인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계량된 기준이 필요하며, 그 기준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여러 대학평가마다 나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 기준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은 각각의 기준만으로 온전한 평가를 할 수 없다는 반증일 것이다. 조선일보는 9월 14일 A24면에 독자권익보호위원회의 9월 회의 내용을 게재했다. 그중 대학평가에 대한 전문은 아래와 같다.

> 지난 6일 자에 〈한국대학 4곳, 세계 톱 100에〉(A1면)를 비롯해 관련 기사가 A6면 및 C2~3면에 전면으로 실렸다. 고작 13년 역사를 가진 영국의 QS 평가에 집착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QS 평가 결과에 공감하는 독자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QS 100위' 안에 들면 세계적 대학으로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한국 대학이 국제화 지표 300위 안'에 들기 위해 노심초사해야 할 이유도 없다. QS 순위가 껑충 뛰었다는 대학들에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한다. 특히 QS 평가처럼 '전문가 평판'에 의존하는 방식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분석해줘야 한다. 세계 수많은 대학의 평판을 비교해 평가할 전문가는 어디에도 없다.

모교는 최근 대학평가에 대해 분석하고 있고, 그에 따라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그러나 각각의 평가에 따라 일희일비하기 보다는 꾸준히 정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모교 법인 이사회, 위원회 배정

모교 법인 이사회는 9월 22일자로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수익사업체 운영위원회에 이사 및 위원 배정을 새롭게 했다. 임기는 법인 이사 및 모교 보직자는 재임기간이며, 외부 위원은 2년이다. 각 분과위원회별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사회 분과위원회

건축위원회 : 허동수 이사(위원장), 박창일 이사, 총장, 설준희 이사, 법인본부장

의료위원회 : 박창일 이사(위원장), 서중석 이사, 총장, 설준희 이사, 조범구 위원, 황의호 위원, 의무부총장, 법인본부장

이사회 특별위원회

국제캠퍼스 제2단계 소위원회 : 허동수 이사(위원장), 박창일 이사, 총장, 이경태 국제캠퍼스부총장, 법인본부장, 서승환 상경대학 교수, 윤형섭 전 이사

수익사업체 운영위원회

의료연관사업 운영위원회 : 설준희 이사(위원장), 이성희 이사, 박창일 이사, 원한석 이사, 의무부총장, 법인본부장, 원주의료원장

연세우유 운영위원회 : 원한석 이사(위원장), 서중석 이사, 박창일 이사, 법인본부장

동문회관 운영위원회 : 서중석 이사(위원장), 박창일 이사, 김동건 총동문회 상임고문, 정규만 총동문회 사무총장, 행정대외부총장, 법인본부장

민병용 한인역사박물관장, 〈애국지사의 꿈〉 출간

민병용(정외 63입·사진) LA 한인역사박물관장이 9월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미국 지역 독립유공자 전집인 〈애국지사의 꿈〉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민 동문은 이 책을 통해 1905년부터 1945년까지의 미주 독립운동 역사와 함께 이승만, 안창호, 서재필, 장인환, 전명운 등 미주 지역 독립유공자 2백15명의 발자취를 담았다.

기형도문학관 내년 7월 건립, 전시물 기탁 기대

기형도(정외 79입) 시인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는 문학관이 광명시에 건립된다.

문학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광명시 소화동 기형도문화공원에 건립되며, 2017년 5월 완공해 7월에 개관할 예정이다. 문학관에는 기형도 동문의 시집, 육필원고 등 각종 자료가 전시되는 상설전시실과 문학행사가 열리는 기획전시실, 다목적 강당, 소규모 도서 공간, 자료실, 수장고 등이 들어선다.

기형도 유품 수집 책임자인 김승구 동문(필명 김태연·요업 80입)은 동문들이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자료를 문학관에 기탁해 주길 바라고 있다. 기형도 동문은 198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했다. 독창적인 문학 세계를 구축했으나, 1989년 3월 7일 뇌졸중으로 쓰러져 29세의 나이로 타계했다.

유품 관련 문의 : 김승구 동문 010-7778-5986, kgiogio@hotmail.com

총동문회장 초청, 여자동창회 임원 격려

박삼구 회장이 9월 21일 오후 6시 백양누리 최영홀에서 여자동창회 임원들을 초청해 격려했다.

박삼구 회장은 "여자동창회의 활발한 활동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모교 발전과 동문회의 발전에 더욱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오경은 회장을 비롯해 여동문들이 큰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모임이 끝난 후, 임원들은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열린 바이올린 거장 라이너 퀴힐의 첫 내한 리사이틀 공연을 관람했다.

이날 이영해(의학 64입)·김용순(간호 67입)·손주온(간호 72입)·조혜성(간호 72입)·반미숙(식공 72입)·황귀연(교음 73입)·조은경(식공 73입)·정우희(의학 73입)·강경순(체육 73입)·백일수(치의 74입)·유호경(영문 76입)·어은실(간호 77입)·김옥용(생물 77입)·김정선(건축 78입)·김혜경(수학 78입)·신정빈(의학 78입)·이은주(식생 79입)·이영경(의생 80입)·홍정미(물리 81입)·최현수(정외 81입)·안은숙(건축 82입)·박은혜(교음 82입)·지영림(법학 82입)·김혜례(신방 83입)·방정숙(법학 85입)·송수현(불문 86입) 임원과 총동문회 정규만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여자동창회 · 제2차 이사회

여자동창회(회장 오경은·건축 72입)는 9월 9일 오전 11시 알렌관에서 제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경은 회장, 심치선(사학 48입)·윤복자(화학 54입)이양자(화학 59입)·이순희(생물 59입)·이영해(의학 64입)·김용순(간호 67입)·서은경(식생활 67입)·임인옥(생화학 69입)·양일선(식생활 69입)·나윤경(교육 84입) 고문을 비롯해 김용학 총장, 송현주 성평등센터 소장 등 내빈 및 동문 1백여 명이 참석했다.

김정선(건축 78입)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정복자(신학 72입) 신과대학 여자동창회장의 기도와 오경은 회장의 인사말 및 손주온(간호 72입) 대외협력부회장의 내빈 소개가 있었다.

김용학 총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새로 선임된 이사 임명장 수여식과 김정선 부회장의 상반기 사업보고 및 최성경(식생활 81입) 재무위원장의 회계보고가 있었다.

안건 및 토의 시간을 통해 동창회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고, 연고전에 여동문의 많은 참석을 요청했다. 신정빈(의학 78입) 운영부회장의 '재활과 리우올림픽 이야기' 강연을 듣고 만찬을 함께했다. 이날 만찬은 여동문의날 동문들로부터 미수를 축하받은 심치선 고문이 후원했다.

치과대학 동문회 · 연아동문 페스티벌

치과대학 동문회(회장 장영준·78입·의료법인 메디피아 이사장)는 9월 3일과 4일 용평리조트에서 '연아동문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연아~ 그 하나됨을 위하여!'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모교 김용학 총장, 윤도흠 의료원장, 김광만 치과대학장, 김기덕 치과대학병원장과 이기택(대학원 80입) 대한치과협회 고문을 비롯해 염동렬 새누리당 국회의원, 서울치과의사회 권태호 회장, 서울대·경희대·조선대 치과대학 동문회 임원 등이 참석해 페스티벌을 축하했다.

장영준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함께한 지난 연세치의학 1백년을 돌아보고 후학들과 나눌 앞으로 1백년의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며, "국내외 치과계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연아인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문과 가족, 재학생, 교직원은 골프, 트레킹, 승마체험, 사진전시, 인문학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며 화합을 다졌다.

문과대학 동창회 · 연문인상 수상자 선정

전인초 동문

한강 동문

백경학 동문

문과대학 동창회(회장 정구종·국문 63입·동서대학교 석좌교수)는 제16회 연문인상 수상자로 학술부문에 전인초(국문 63입) 모교 문과대학 명예 교수, 문화예술부문에 한강(국문 89입) 서울예술대학교 교수, 사회봉사부문에 백경학(사학 83입) 푸르메재단 상임이사를 선정했다.

전인초 동문은 모교 문과대학장과 국학연구원장을 역임하면서 한국 국학연구에 기여했으며, 외솔상을 받은바 있다.

한강 동문은 소설 〈채식주의자〉로 지난 5월 국제적으로 권위가 있는 '맨부커 상'을 수상해 한국 문학의 위상을 높였다. 백경학 동문은 한국 최초의 어린이재활병원을 건립함으로써 사회봉사에 크게 기여하였다.

시상식은 10월 18일 오후 5시 모교 문과대학 100주년기념홀에서 열린다.

문과대학 동창회 제1회 동문친선골프대회 안내

문과대학 동창회(회장 정구종·국문 63입·동서대학교 석좌교수)는 오는 11월 5일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에 있는 푸른솔골프클럽에서 제1회 동문친선골프대회를 연다. 참가신청은 10월 27일까지 총동문회(담당 최은숙 팀장, 전화 02-365-0631)에서 받는다.

연세조찬기도회 · 84학번 동기회 주관

연세조찬기도회(회장 이효종·화학 55입)가 9월 1일 모교 루스채플에서 84학번 동기회(대표 김호동 경영·tullett prebon 전무이사)의 주관으로 열렸다. 기도회에는 김석수(법학 52입) 법인 이사장, 최기준(국문 55입)·이승영(신학 69입) 전 이사, 홍복기(법학 71입) 법인본부장, 문흥렬(정외 61입) 연무회 전 회장, 유수영(토목 67입) 민족사랑교회 목사, 오경은(건축 72입) 여자동창회장 등이 참석했다.

염유식(경영 84입) 모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정종섭 동문(경영 84입·(주)웨슬리퀘스트 대표이사)이 대표기도를 하고, 이영석 동문(경제 84입·위드회계법인 공인회계사)이 성경봉독을, 이글스 콰이어 84합창단(지휘 조형민·교음 84입)이 특별찬양을 했다.

고척교회 조재호(기계 74입) 목사는 '당신은 소중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으며, 민동림 동문(교음 84입)이 헌금 기도를 했다. 이재원(사학 84입) 모교 교수, 이원섭(경영 84입) 인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신소미 동문(작곡 84입)이 각각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한국 교회와 교단을 위해, 연세와 국내 대학을 위해 기도를 했다.

이날 기도회에서 김용학 총장과 이효종 회장이 장학생 세 명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호열(신학 58입·구로문교회 원로목사) 전 신과대학 동창회장이 축도를 했다.

연세미래지도자클럽 · 정기 모임

박영렬 교수

서정아 서기관

연세미래지도자클럽(회장 주인기·경영 67입)은 9월 5일 오후 6시30분 명동 CGV 씨네라이브러리에서 9월 정기 모임을 개최했다.

강연에 앞서 참석자들은 뷔페 음식과 함께 변기호(응통 83졸) 와인나라 사장이 후원한 와인을 즐겼다. 신영수(법학 86입)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김영란법에 대해 '5분 스피치'를 했으며, 연세심포니에타 총무인 김혜란 동문(기악 86입)이 현악 4중주를 들려줬다.

이날 강연을 맡은 박영렬(경영 76입) 모교 교수가 '5G시대의 신경영전략'에 대해서, 서정아(법학 86입) 행정안전부 서기관이 '정부조직의 이해'에 대해 특강했다.

참석자들은 손준호(법학 84입)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신영수 변호사, 김현미(신방 86입) 동아일보 부장, 김인식(경영 86입) 삼성카드팀장의 생일을 축하했다.

신임회장

인문예술대학 총동창회

이현용(국문 84입)

인문예술대학 총동창회 2대회장을 맡게 된 이현용(한국효교육문화연구소장)입니다.

먼저, 전임회장 이승윤 동창회장과 임원진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주캠퍼스가 매지리에 1984년 창학한 이래로 그동안 많은 동문들이 배출되고 사회에서 중견간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캠퍼스는 울창한 자연과 조화되어 우수한 학생들이 전원적인 생활 속에서 학문적 연구에 매진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문예술대학(국문, 영문, 역사, 철학,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은 6개 학과로 이루어진 단과대학으로 인문학의 발전을 도모하며 많은 선배 및 재학생들이 곳곳에서 노력하고 있음을 볼 때 동창회장의 막중한 임무를 느끼게 됩니다.

총동창회의 최대 목표는 동문간의 협력관계 및 조화로움 속에서 선후배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4心(신앙심·효심·애국심·애교심)의 정신을 모교에 확산시키며 동창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신앙심'은 모교의 정신이자 얼입니다. '효심'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며, '애국심'은 나라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감사함을 갖게 되는 정신입니다. 특히 모교를 사랑하는 '애교심'은 모든 동문이 갖추어야할 신념이라고 봅니다. '4心 운동'이야말로 우리 총동창회가 추구해야할 진정한 가치라 생각하며 저는 총동창회의 발전과 아울러 인문예술대학 총동창회만의 멋진 그림을 그려나가고자 합니다.

인문예술대학 총동창회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오영교 인문예술대학 학장님과 동창회장직을 맡아 주신 국문학과 권윤혜, 영문학과 김창희, 역사학과 박상규, 철학과 박승권, 산업디자인학과 한석우, 시각디자인학과 이근준 동문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행정대학원 총동창회

조성명(행정원 07입)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총동창회 제23대 동창회장에 취임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늘 연세의 사랑과 이념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총동창회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총동창회는 모교의 사랑과 애정을 기억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대학원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단연 돋보이게 우리 대학원 출신 동문들이 선전을 하였고 여전히 행정대학원 개개인은 발전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경기둔화로 인한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협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지만. 아직 우리는 젊고 성장의 잠재력이 있으며 우리의 후배 젊은이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 꿈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동문 여러분!

총동창회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는 훌륭한 동문 여러분들을 한분한분을 모시는 마음으로 잦은 교류의 장을 만들고 소통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행정대학원의 명예와 위상을 높이고 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나아갑시다! 사랑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ROTC 동문회 · 제 16회 동문회장배 골프대회

ROTC 동문회(회장 강진규·전기 76입)는 9월 26일 수원CC에서 제16회 ROTC 동문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강진규 회장을 비롯해 백승기(정외 59입)·이재근(화학 61입)·박보명(행정 65입)·김용한(행정 70입) 명예 회장과 김영식 행정대외부총장, 김동주 대령(전 신촌캠퍼스 학군단장) 등 1백40여 명의 동문 및 가족이 참가했다.

유희진(화공 77입) 경기위원장의 룰 설명과 함께 샷건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됐다. 경기에 이어 이찬희(체육 80입) 사무총장의 사회로 2부 만찬과 시상식이 시작됐다.

단체전에서는 16기가 우승을 차지했다. 개인전에서는 107챔피언에 오종호 동문(체육 83입)이 작년에 이어 2연패를 달성했고, 김덕환 동문(체육 74입)이 시니어 메달리스트, 유희진 동문이 주니어 메달리스트를, 개인 우승은 오영호 동문(생물 77입)이 차지했다. 특별상으로 정성건(전자 75입) 명예 회장이 시니어 롱기스트, 이희석 동문(건축 91입)이 주니어 롱기스트에 선정되었다.

박경한(불문 77입) 대회 준비위원장의 폐회사로 2016년도 골프대회를 마치고, 홀인원이벤트참가비는 연세ROTC발전후원회에 기부했다.

연세뮤즈83 · 제2회 정기 공연

연세뮤즈83(단장 김태강·작곡)이 9월 10일 홍대 롤링홀에서 제2회 정기 공연을 열었다.

연세뮤즈83은 음악을 사랑하는 83동기들이 모여 공연을 통해 소통의 장을 열어가는 밴드 동아리로 2014년 창단했다.

'온음(온기있는 음악)과 반음(반하는 음악)'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공연에는 객석 1백50석이 동기들로 꽉채워졌다. 4개 팀(와이 이글스, 스윗 블랜딩, 조신박, 와이비주얼) 21명의 단원이 17곡 총 2시간에 걸쳐 공연하였으며, 마지막 곡은 응원가인 '해야'로 뮤지션과 객석이 모두 하나 되어 연고전의 응원전을 방불케 하는 등 공연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바쁜 일정들 속에도 짬짬이 연습하고 합주한 연세뮤즈83 멤버들은 50대에 다시 찾은 열정으로 삶의 활기를 느끼는 시간을 만끽했다.

연세레크리에이션연구회 · 창립 50주년 기념식

연세레크리에이션연구회(회장 이준영·응통 78입·아래 RRC)는 9월 3일 오후 2시 학생회관 부를샘에서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행사에는 1기 창립 회원인 노정선(신학 64입) 모교 명예 교수, 한기근 동문(토목 65입)과 박창영 동문(신학 65입)의 가족을 비롯해 53기 새내기 회원에 이르기까지 1백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반세기 동안 이어온 동아리 역사를 회고하고 함께 1백년 전통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또 그동안 RRC를 위해 헌신한 8명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김형석 모교 명예 교수가 '젊은이여 비상의 날개를 펴라'를 주제로 백세시대를 사는 지혜를 들려줬다. 신촌 세시봉으로 자리를 옮긴 동문들은 준비한 공연 등을 함께하며 친목을 다졌다.

1966년 창립된 RRC는 노래와 게임, 포크 댄스 등을 중심으로 여름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캠프와 겨울에는 보육원 봉사활동 등을 펼쳐왔다.

서울무악로타리클럽 · 지역아동센터 봉사활동

서울무악로타리클럽(회장 최진욱·법학 78입)은 봉사활동으로 9월 26일 오후 4시 30분 롯데마트 구로점에서 그루터기 배움터 지역아동센터 학생들과 마트 장보기 행사를 펼쳤다.

그루터기 배움터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 조손, 한부모 가정 등 지역사회에서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생이 방과 후 공부와 식사를 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이다. 마트 장보기는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지만 가정 형편상 마트에서 장보기 힘든 학생들에게는 쇼핑의 경험과 경제 관념을 배우게 하고 개인별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또, 회원들에게는 아이들의 밝고 어른스러운 모습에 에너지를 받고 행복을 느낀 시간이 되었다. 서울무악로타리클럽은 그루터기 배움터 지역아동센터에 매월 정기 후원을 하고 있으며, 매년 6학년 학생을 선정하여 중국 문화체험 여행경비를 지원하고 송년모임을 함께 하고 있다.

남가주 동문회 · 골프 연고전 승리

남가주 동문회(회장 김지백·행정 74입)는 9월 24일 웨스트리지 골프 클럽에서 남가주 골프 연고전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고려대 교우회 주최로 열렸으며, 동문 63명을 비롯해 양교 1백21명은 29개 조로 나누어 경기를 펼쳤다. 남가주 동문회는 12개 조에서 승리하고 7개 조에서 무승부를 기록해 최종 승리했다. 경기 후 양교 동문들은 푸짐한 경품을 나누며 화합을 다졌다.

한편, 양교 동문회는 10월 15일 롱비치 체리 팍에서 합동 야유회를 가질 예정이며, 이날 축구 연고전도 함께 개최할 계획이다.

프랑크푸르트 동문회 · 연고전 무승부

프랑크푸르트 동문회(회장 정세호·독문 77입)는 9월 10일 프랑크푸르트 인근 운동장에서 연고전을 개최했다.

양교 동문회는 20년 넘게 연고전을 통해 우정을 나누고 있으며, 이번 대회에는 동문과 가족 80여 명이 참가했다. 예년처럼 남자 족구, 여자 발야구와 함께 축구와 이어달리기를 겨뤘으며, 경기 결과 모교가 발야구와 이어달리기에 승리하고, 고대가 족구와 축구에서 이기며 무승부를 기록했다. 특히 이어달리기에서 모교 마지막 주자가 결승선 30m를 남기고 역전에 성공해 동문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번외 경기로 핸드 골프와 줄넘기도 진행돼 모든 동문들이 함께했다.

시카고 동문회 · 정기 연고 골프대회

시카고 동문회(회장 유병택·토목 81입)는 9월 17일 미드레인 골프 리조트에서 정기 연고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시카고 연세 동문회 주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양교 60여 명의 동문들이 접전을 펼쳤다. 경기 결과 고대가 우승을 차지했다.

경기 후 참가자들은 윌링 소재 그릴 온 더 락에서 만찬을 함께하며 화합을 다졌다.

연세산악회 · 돌로미테 하계 원정 등반

연세산악회(회장 구태용·의학 84입)는 8월 10일부터 22일까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의 하나인 돌로미테(이탈리아 북동부 남티롤 지방의 알프스 산군) 지역에서 2016 하계 원정 등반을 진행했다.

이번 등반에는 구태용 회장을 비롯해 이정범(화공 66입)·김원영(지질 68입)·정호진(요업 73입)·박내혁(신방 77입)·정갑수(물리 78입) 회원 등 OB 17명과 재학생 2명이 참가했다.

회원들은 돌로미테 산군의 친퀘 토리, 셀라 타워 1·2·3봉, 마르몰라다, 치마 그란데를 등정하고, 다양한 코스의 거벽등반, 비아페라타(철말뚝길) 등반, 트레킹 활동을 즐겼다.

언론홍보영상학부 총동창회 · 언론인의 밤

언론홍보영상학부 총동창회(회장 박천성·신방 81입)는 9월 22일 오후 7시 모교 총장공관에서 '2016년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언론인의밤' 행사를 개최했다.

1부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신방인의 미래'를 주제로 한 포럼과 2부 '총장과의 만찬'으로 진행됐으며, 박상일(신방 83입) MBC PD가 언론홍보영상학부 언론인상을 수상했다.

이날 김용학 총장과 김영석 부총장, 박천성 회장(다트미디어 대표), 최영택(신방 73입) 더PR 발행인 겸 대표, 조성하(신방 77입) 동아일보 국장, 최준석(신방 78입) 주간조선 선임기자, 현경보(신방 78입) 리얼미터 미래전략연구소장, 황상진(신방 82입) 한국일보 편집국장, 김철훈(신방 82입) 언론인모임 회장(뉴스1 부국장 겸 사회부장) 등 1백여 명이 참석했다.

보건대학원 총동창회 · 조찬특강

보건대학원 총동창회(회장 조경희·94입·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9월 22일 오전 7시30분 모교 상남경영원에서 탈북 의료인 이혜경 박사(대한약사회 국제위원회)를 초청해 '북한의 보건의료와 보건일군'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찬모임에는 유승흠 명예 교수(의학 64입·한국의료지원재단 이사장), 신언항 동창회 고문(83입·중앙입양원 회장, 전 보건복지부 차관), 성동경 고문(98입·성치과원장), 용왕식 고문(98입·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지사장), 김남식 부회장(98입·원우회장단 회장)등 동문 20여 명이 참석했다.

연세동문합창단 '연세콰이어' · 후배 합창단 격려 방문

연세동문합창단 '연세콰이어'(단장 이화순·독문 80입)는 11월 정기 연주회를 앞두고 있는 모교 합창 동아리 '글리합창단'과 '아브낭트합창단'을 9월 8일 방문해 선물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연세콰이어'도 10월 12일 언더우드 서거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합창 공연으로 '언더우드의 기도', '주님나라 이루게 하소서'를 들려줄 예정이다. 한편, 9월 25일 남가주 연세콰이어 김광순 단원(전기 79입)이 찾아와 함께 연습을 했으며, 10월에 이영두 지휘자(교음 68입)도 '연세콰이어'를 방문할 예정이다.

83동기 산우회 · 50회 기념 MT

83동기회(회장 오기호·경영) 산우회 건강일요맛산행팀(팀장 김원광·법학, 총무 노춘희·간호)은 8월 23일 평창으로 산행 50회 기념 1박2일 MT를 다녀왔다.

건강을 위하여 꾸준히 산행을 하며 음식의 맛과 인생의 맛을 즐기자는 뜻을 담은 '건강일요맛산행'팀은 83동기회 산우회(대장 최민혁·기계) 산하로 2014년부터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 서울 둘레길과 근교 산을 산행했다. 이날 MT에서 동문들은 도전골든벨, 라인댄스, 싱어롱, 보물찾기 등을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재용 (전자 73입) 교학부총장

서로 소통하며 변화와 혁신을 함께 이룹시다

교육과 연구가 대학 본연의 역할이라는데 이견은 없을 것이다. 그 중요한 일을 총괄하는 것이 교학부총장이다. 모교는 그동안 입학처장과 연구처장, 공과대학장을 역임한 이재용(전자 73입) 교수에게 중책을 맡겼다.

2월 취임하신 후 그동안 느낀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국내외에서 '연세의 브랜드파워'가 크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에 바탕을 둔 연세가 배출한 섬기는 지도자들이 우리 사회가 어려울 때 자신을 희생하고, 국내외 각 분야에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에 우리 대학도 변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학문 분야와 다양한 구성원들, 다양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많은 대화와 의견을 나누며 빠른 의사 결정을 통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해야합니다.

임기 동안 이루고자 하는 주요 목표와 중점 사업은 무엇인가요?

18대 김용학 총장님은 연세가 미래를 선도하는 대학이 되기 위해 기독교정신, 창의성, 연결성이란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저는 이를 교육과 연결시켜 어떻게 실현하느냐에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기술기반의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과 연구 정책을 확립하여 연세 학풍을 조성하고, 미래 사회 문제에 도전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육과 연구의 방향은 평가 시스템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인사 평가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미래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적극 수용하며, 소수가 아닌 다수의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수업 방식 변화와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로운 교양 필수 과목을 재구성하고, 글로벌 융합공학부와 언더우드국제학부의 안정적 정착은 물론 국제화 전략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백세시대를 맞아 평생 교육의 확대도 중점 사업입니다.

내년 2학기부터 시행될 인사 제도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인사 제도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고히 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교원 스스로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연세 학풍을 만드는 주체라는 인식의 변화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본 원칙은 Middle up down 방식으로, 본부는 연세의 발전 계획에 따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각 대학과 학과, 세부전공별로 발전 계획에 따른 글로벌 경쟁력과 질적 수월성을 제고한 인사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교원은 본인의 연구 방향과 달성하고자 하는 질적 연구 성과 목표를 연구계획서로 작성해 인사평가위원회에 인정받으면, 그 결과에 따라 평가받게 됩니다. 특히 신임 교원의 연구지원을 위해 최초 3년간 12학점 의무 강의를 9학점으로 줄일 예정입니다.

최근 대학 평가에서 제자리걸음입니다.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현재 대학평가팀에서 정확한 이유를 분석중입니다. 일부 확인된 것은 대학에 대한 평판이 주로 아시아, 북미, 유럽의 연구자들에 의해 이뤄지는데 우리의 우수 연구 결과나 교육 사례 등을 이들 연구자들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평가에 영향을 주는 우수한 국제적 연구자들과의 교류 확대와 미흡했던 국제적 홍보도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양적 평가에서 질적 평가로의 변화입니다. 지난 3월부터 인사 평가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글로벌 경쟁력과 전공별 특성화를 반영한 질적 수월성에 기준을 맞추고 사회에 영향을 주는 연세의 학풍을 만들어가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던져주는 동문들의 격정은 응원소리와 같습니다. 연세동문들의 뜨거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연세 구성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연세의 힘은 40만 동문들과 현재 연세대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섬기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단단한 기초가 있기에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는 계속 정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세의 저력을 믿고 계속 지지해주시고 또 많이 협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문과 교직원, 학생 등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며 자주 소통하고 고민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원엽 기자

모교, 차없는 그린캠퍼스 구축

모교는 8월 29일부터 논지당과 과학관 사이 서측도로의 차량 통행을 제한했다.

그동안 캠퍼스 중심도로인 백양로가 지하화되면서 서측도로로 차량이 집중됐고, 단과대학이 밀집한 서측도로는 연세·삼성학술정보관 출입구까지 있어 학생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았다.

이번 '차없는 그린캠퍼스 구축'으로 차량 통행이 가능한 아스팔트 비율이 56%에서 약 19.3%로 낮아졌고, 녹지 및 휴식 공간은 5%에서 42%로 대폭 확대됐다. 그동안 서측도로를 이용하던 차량은 공학원 지하 주차장과 백양로 지하 주차장 연결 통로를 통해 이동해야 한다.

문수웅 동문, 장학금 전달

문수웅 동문(영문 61입·왼쪽)이 9월 6일 11시 모교 대외협력처장실에서 경영학과 김준혁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지난해 장학금 1억 원을 기부한 문수웅 동문은 "Contribution, Donation, Charity의 의미를 강조하며, 첫 약자를 딴 'CDC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1981년 무역회사 '문성종합통상'을 설립한 문 동문은 "사회에서 일하며 모은 돈으로 장학사업을 꼭 하고 싶었다"며 "장학사업의 첫 시작인 이 자리가 뜻깊고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김준혁 학생은 "선배님처럼 사회에 기여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며, 문 동문에게 감사의 편지를 전했다.

'Y-IBS관' 착공

모교는 IBS(기초과학연구원)와 9월 9일 오후 3시 신촌캠퍼스에서 Y-IBS관(가칭·사진) 착공식을 가졌다.

Y-IBS관은 모교가 유치한 IBS 연구단인 나노의학 연구단(단장 천진우·화학 81입)이 입주할 연구소 건물이다.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연면적 약 4천3백㎡이며, 융합연구에 최적화해 설계됐다.

김용학 총장은 "Y-IBS관은 IBS와 모교의 나노과학·의생명과학 융합 연구를 위한 최적의 거점이 될 것"이라며 "자유로운 연구 환경을 제공해 창의적인 연구문화를 조성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노의학 연구단은 나노과학을 기반으로 질병 진단, 치료에 필요한 정밀나노시스템을 연구개발해 미래의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계획이다.

창업지원단, 스타트업 채용박람회 개최

모교 창업지원단(단장 손홍규·토목 81입)은 스타트업 채용박람회 '세상을 바꾸는 스타트업, 스타업 캠퍼스 리쿠르팅'을 9월 6~7일 공학원 아트리움에서 개최했다.

대학교 내에서 스타트업 채용박람회가 열린 것은 모교가 처음이다. 이번 행사는 대학생들에게 스타트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유망 스타트업 기업들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열렸다.

손홍규 창업지원단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참여 학생들이 스타트업에 대한 인식을 좋게 바꾸고 싶다"며 "스타트업을 창업하거나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행정대학원, 연세AEP Gateway to Korea 신설

행정대학원이 연세AEP(Advanced Executive Program)에 Gateway to Korea 과정을 신설했다.

일본기업 한국 주재원들을 대상으로 한 Gateway to Korea 과정은 한국에 대한 이해와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증진을 돕고 모교의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12주간 주 1회 일본어와 한국어로 강의하며 9월 21일 첫 강의를 시작했다.

생활과학대학 동창회 동문의 밤 및 가을 동문 바자회 안내

생활과학대학 동창회(회장 이영경·의생활 80입)는 10월 12일 오후 6시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2016 동문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또한 오전 11시부터 백양누리 헬리녹스홀과 곽정환홀에서 '후배사랑 장학금' 기금 마련을 위한 '가을 동문 바자회'를 열어 기증품 등 품질 좋은 물건들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합니다.

언더우드 서거 100주년

하나님의 사자 그리스도의 제자 한국인의 친구

한국으로 부름 받은 언더우드

호레이스 G.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 한국명:원두우)는 1859년 7월 19일 영국에서 태어났다. 육남매 중 넷째로 태어난 언더우드는 어려서부터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자랐다.

사업가였던 아버지의 사업실패로 미국으로 이주하여 22세에 뉴욕대학을 졸업한 언더우드는 뉴 브론스윅 신학교에 입학했다.

선교서를 회원이 한국 선교의 필요성에 대해 소개한 글을 보고 그는 한국 선교의 사명을 느끼게 되었다.

한국 선교를 하고 싶었지만 후원 기관을 찾지 못한 채 1년을 보내고 1884년 신학교를 졸업한 그는 뉴욕에 있는 교회의 청빙을 받고 수락편지를 우체통에 넣으려는 순간 '한국에 갈 사람이 없느냐, 한국은 어찌할 것이냐?'라는 신비로운 음성을 듣게된다. "뉴욕교회에 청빙 수락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집어넣으려는 순간 이런 음성을 들었다. 편지를 도로 포켓에 집어넣고 한국에 가기로 결심했다"고 회고했다.

한국행을 결심하고 선교부를 찾아가자 한 독지가로부터 한국 선교를 위한 헌금이 도착해 있었다. 뉴욕에 있는 라파엘 장로교회의 평신도인 맥 윌리암스가 헌금한 6천 달러는 당시 선교사 한 가정의 5년 선교비에 해당되는 금액이었다.

갑신정변의 여파와 청,일 관계의 불안함 속에 한반도에 무력충돌 가능성이 예상되던 때였지만 언더우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인천항에 도착했다.

민족 지도자 김규식, 안창호 길러내

선교활동을 위해 1년간 의학공부를 했던 언더우드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광혜원에서 병원일을 도왔다. 광혜원은 언더우드보다 1년 먼저 서울에 온 알렌이 조선 정부의 허락을 받아 개원한 병원이다. 1886년 광혜원은 제중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최초의 의학교를 설립했다. 언더우드는 제중원에서 의학도들을 가르치며 한국어 학습에 전념하는 한편 미래의 지도자와 교사를 기르기 위해 자기 집에서 무상으로 교육을 시작했다.

1886년 고아원 개설을 허가받고 집 옆에 있는 건물을 5백 달러에 구입해 '언더우드 학당'이라는 교명을 붙인 고아학교를 설립했다. 당시 고아학교 출신으로는 민족 지도자인 김규식 박사, 도산 안창호 선생 등이 있다.

1887년에는 한국인 14명과 함께 한국 최초의 조직교회인 새문안교회를 설립한 언더우드는 1889년 제중원 여의사인 릴리어스 호튼과 결혼하였다. 호튼은 명성왕후의 시의로 일하기도 했으며, 훌륭한 의료선교사인 동시에 탁월한 문필가였다. 그녀의 저서인 〈한국의 언더우드〉는 언더우드의 어린 시절부터 31년 간의 한국 선교활동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건강 악화로 미국으로 돌아갔던 언더우드는 1892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병든 환자와 고아들을 헌신적으로 돌보았다. 1901년 고아원을 확장하여 경신학교를 설립했고, 1915년 경신학교에 대학부를 개설해 교장으로 취임한 언더우드는 모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로 발전시키며 근대 교육의 장을 열었다. 또한, YMCA, 대한기독교서회, 성서공회를 창립했고, 한국어문법, 한영사전, 그리스도신문을 출간하는등 종교, 정치, 교육, 문화, 사회사업 등 여러 분야에 많은 공적을 남겼다.

몸이 쇠약해진 언더우드는 1916년 미국으로 돌아가 요양하다가 58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모교에 세워진 언더우드 동상에는 세 마디 글귀가 새겨져 있다. 'Messenger of God, Follower of Christ, Friend of Korea(하나님의 사자, 그리스도의 제자, 한국인의 친구)'.

언더우드는 한국인에게 단순한 복음전도자가 아닌 친구였고, 한국인의 의식을 일깨우고 모든 분야에서 노력한 개척자였다.

조국의 독립을 외친 푸른눈의 한국인

언더우드의 사명은 그의 아들에게로 이어졌다. 언더우드의 아들인 호레이스 H 언더우드(Horace Horton Underwood, 한국명: 원한경)는 미국 국적이었지만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랐으며 한국에 묻혔다. 서울 정동에서 태어난 원한경은 1905년 미국 뉴욕 대학을 졸업하고 연희전문학교에서 영어강의를 시작으로 평생 연세를 위해 헌신했다. 1919년 3.1운동 당시 원한경은 '제암리 학살 사건'을 외국에 폭로하는 등 일제의 만행을 세계에 알렸다.

1928년 연희전문학교 부교장이 된 원한경은 학생 수를 늘리고 시설을 확충하며 연희를 발전시켰다. 또한, 한국학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박물관을 확장하고 유물을 수집하며 학문적인 노력을 계속했다. 그는 영국 왕립아시아학회의 왕립아시아학보에 〈한국관계 서구문헌목록〉을 기고하기도 했다. 1934년 교장이 된 원한경은 "훌륭한 한국인 교수를 만들어 한국인을 가르치겠다"며 젊은 인재들을 교육했다. 이런 노력으로 연희는 민족주의의 온상지가 되었고, 많은 인재들을 키우며 한국 교육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계속되는 일제의 탄압으로 그는 1941년 교장직을 그만 두게 되었다. 미국 정부의 귀국 종용에도 연희에 남아 계속 강의하던 그는 "한국인이 나의 퇴거를 요구하지 않는 한 한국을 떠날 수 없다"고 버티다가 일본헌병대에 연행되어 6개월 간 수용소에서 고초를 겪고 강제 추방을 당했다. 다시 한국에 돌아올 것을 다짐한 원한경은 미국에서도 전국을 순회하며 한국의 독립을 부르짖었다.

오늘날의 연세를 이끈 원한경

1945년 해방과 동시에 한국으로 돌아온 원한경은 도착과 동시에 연희의 재건에 착수했다. 1946년 연희대학교 설립허가를 받고, 1947년 10월 연희대학교 명예 총장이 되면서 학교일에 더욱 전념하며 지금의 연세대학교를 이루는 산파역할을 했다.

1949년 원한경의 집을 피습한 괴청년들의 총격으로 부인인 에델 여사가 사망하게 된다. 그 충격으로 건강이 더욱 악화된 원한경은 1950년 치료를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면서도 살인범들을 용서해달라고 대통령에게 탄원을 했다.

미국으로 간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원한경은 치료를 끝내지도 않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는 아픈 몸을 이끌고 부산에서 구호활동을 하며 전쟁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한국인을 위해 헌신했다. 또한, 첫째 아들인 원일한을 해병대에 입대시키고, 막내아들 원득한을 육군에 입대시켜 한국전쟁에 참전하게 했다.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위해 헌신한 원한경은 1951년 61세의 나이로 부산에서 생을 마감한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사랑하는 언더우드의 가족들

원한경의 장남인 원일한(Horace Grant Underwood Jr.) 역시 일생을 한국의 교육과 선교에 힘썼다. 한국전쟁 당시 연세의 복구사업에 힘썼으며, 인천상륙작전 때는 미국 해군의 정보부에서 활동하였고 국제연합군 수석통역관을 맡아 정전협정을 이끌어냈다. 이후 모교 영문학 교수, 재단이사, 한미협회부회장, 대한성공회 이사 등을 지내며 한국 교육 발전에 헌신했다.

한국을 사랑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모란장, 인촌문화상, 한미우호협회상, 연문인상을 받기도 했던 그는 "내 겉은 미국인이지만 몸 속에는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말을 남기고 2004년 별세했다. 원일한의 장남인 원한광(Horace Horton Underwood Jr.) 박사는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을 해외에 알렸다는 죄로 강제 추방당하기도 했다. 오랫동안 모교 교수와 재단이사, 한미교육위원단 단장으로 봉직하고, 아버지 원일한 교수가 사망하고 뉴욕으로 떠났지만 그는 "거처만 옮기는 것이고 앞으로도 한국에 계속 들어올 것"이라며 한국 사랑을 강조했다.

원한광 교수는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원일한 박사의 셋째아들인 원한석(Peter F. Underwood)씨가 한국에 머물며 모교 재단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한국에 진출하려는 외국 기업을 도와주는 컨설팅 비즈니스를 하며 4대째 언더우드 가의 한국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올해는 언더우드(원두우)가 서거한지 1백년이 되는 해이다. 한국의 교육, 선교, 의료, 정치, 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함은 물론, 전쟁, 민주화 등 시대의 아픔을 함께 해온 푸른눈의 한국인 '연희 원씨'. 그들의 한국과 연세를 사랑하는 마음은 4대에 걸쳐 13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계속되고 있다.

정리 · 백진열 기자

문화

1 김혜란·박태형·최재원 피아노 트리오

본회 문화예술분과 상임이사인 바이올리니스트 김혜란 동문(기악 86입·사진 위)과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교수로 재직중인 첼리스트 박태형 동문(기악 91입·사진 아래)이 피아니스트 최재원씨와 함께 10월 8일 오후 8시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콘서트를 연다. 이날 공연에는 베토벤, 멘델스존 등의 곡을 연주한다. 문의 : (주)마스트미디어 02)541-3184

2 박혜진 독창회

섬세한 표현력과 화려한 음색으로 관중을 압도하는 소프라노 박혜진 동문(성악 91입)이 10월 14일 오후 8시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독창회를 연다. 이날 공연에는 로보스, 스트라우스, 김효근, 임긍수 등의 곡을 노래한다. 문의 : 예인예술기획 02)586-0945

3 퀄텟 K

Quartet of Korea의 의미를 가지고 한국을 빛낼 포부를 보여주는 퀄텟 K. 비올리스트 이은숙 동문(기악 92입)은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고있는 각 파트 리더들과 함께 10월 9일 오후 2시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현악4중주 무대를 연다. 이날 공연에는 모차르트, 하이든, 라벨의 곡을 연주한다. 문의 : 예인예술기획 02)586-0945

4 황윤정 첼로 독주회

국내외에서 독주회와 실내악 연주 그리고 강연을 하며 활발한 음악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첼리스트 황윤정 동문(기악 96입)이 10월 9일 오후 7시30분 금호아트홀연세에서 독주회를 연다. 이날 공연에는 드뷔시, 쇼팽 등의 곡을 연주한다. 문의 : 더블유씨엔코리아(주) 02)2183-1292

5 조희연 귀국 피아노 독주회

관객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무대에 오르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조희연 동문(기악 98입)이 10월 22일 오후 3시 금호아트홀광화문에서 귀국 독주회를 연다. 이날 공연에는 하이든, 슈만, 쇼팽, 차이콥스키의 곡을 들려준다. 문의 : 예인예술기획 02)586-0945

신간

공감으로 변화하라

〈내삶을 바꾸는 공감〉-김지홍 지음

모교 경영학 교수인 김지홍 동문(경영 73입)은 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하는 데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채워야 할 부분이 남을 이해해 주고 공감해 주며 칭찬해 주는 능력이라고 말한다. 김 동문은 다른 사람의 내면에 대해 조금만 더 이해하고 노력하면, 관계가 훨씬 좋아질 수 있다고 말한다. (맑은나루/15,000원)

나를 깨우는 짧고 깊은 생각

〈심연〉-배철현 지음

심연은 배철현 동문(신학 81입)의 깊이 있는 해석이 더해진 인문 에세이로, 고대와 현대, 동서양을 막론하고 철학, 종교학, 언어학, 문학, 예술 등을 넘나드는 인문학적 통찰을 통해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선사한다. 배 동문은 이 책을 통해 삶의 열정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이끈다. (21세기북스/17,000원)

인생의 바닥을 친 순간, 꿈을 썼다. 그리고 운명은 달라졌다!

〈멈추지 마 다시 꿈부터 써봐〉-김수영 지음

김수영 동문(영문 00입)은 중학교 중퇴와 암진단이라는 굴곡을 이겨내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무작정 런던행 비행기 표를 끊고 세계 도전을 시작했다. 2005년 꿈 목록을 처음 쓴 이래 80개국에서 68개의 꿈에 도전했고, 73개의 꿈은 83개로 늘어났다. 그리고 그녀의 도전은 지금도 계속된다.(위즈덤하우스/13,800원)

박종휘 장편소설

〈태양의 그늘3〉-박종휘 지음

박종휘 동문(경제원 07입)의 장편소설 태양의 그늘이 완결됐다. 변호사 일을 하며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평우와, 보험 일로 사회적인 성공을 거둔 채봉은 함께 희망원을 운영하며 살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평우의 과거를 알고 있는 최수영이 이를 빌미로 평우를 협박하게 되고, 채봉은 현명하고 당차게 이를 극복해가며 따뜻한 인간미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렇게 한 고비를 넘긴 그들에게 위기는 다시금 찾아오게 되는데…. (은행나무/14,000원)

생활 속의 법률지식 (53)

산 자에게 무덤이란?

김서현 (정외 84입)
법무법인
비전인터내셔널 변호사
(shkim@visionlaw.co.kr)

남프랑스의 햇살 가득한 도시 생폴드방스에는 색채의 마술사였던 마르크 샤갈의 무덤이 있다. 죽어서도 한편의 예술작품 같은 무덤으로 그는 우리 곁에서 영원히 안식을 취하고 있다. 아름다운 해변도시 니스에 자리 잡은 '샤갈 미술관'을 거쳐 생폴드방스 샤갈의 무덤에 이르면, 삶에서 죽음까지 한 인간의 일생의 여정에 마침표를 찍고, 산 자는 경건한 마음으로 다시 삶의 자리에 돌아온다. 이렇듯 무덤도 작품으로 피어나는 삶이 있다. 카리브해의 진주, 쿠바의 아바나에도 아름다운 대리석 조각 작품들의 전시장 같은 무덤 숲이 있다. 피라미드나 진시황릉이 아니더라도 존재감을 한껏 드러내는 무덤들은 현재 다 관광명소이다.

죽어서 차지한 공간들이 작품처럼 다가오거나 역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역사물로서의 가치만 있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동네 산책코스로 삶에 대한 성찰을 하게 하는 철학적 공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삶과 죽음이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한다는 성찰이 있으면, 삶은 보다 더 품격과 여유를 갖출 수 있다. 무덤이 명소인 곳은 왕들의 무덤을 제외하면 대부분 공동묘지 형태이다. 외국을 여행하면서 느낀 점은 삶에 죽음이 밀착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체로 묘지들은 공원으로 활용되고, 그만큼 철학적 성찰의 공간이 된다. 샤갈의 무덤에 이르는 길엔 예쁜 가게들과 갤러리들이 즐비하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즐겁게 연상되기도 한다. 분명 우리와 다른 모습니다. 우리는 공동묘지라면 왠지 으스스한 느낌이 든다. 대체로 삶과 동떨어진 곳에 있거나, 문화적으로 삶과 친밀하지 않다.

최근에 잘 가꾸어진 공원묘지들도 많이 생기고 있지만 대부분은 개인 사설묘지를 가지고 있다. 종중 땅이거나 개인 토지에 매장을 하더라도 관리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다. 후손들은 묘를 관리하는 것이 어느새 부담이 될 지경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살 공간도 부족하다. 매장문화에 일대 변혁이 필요하다. 풍수지리를 신봉한다든지, 죽은 조상이 산 후손을 보살핀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 이상 획기적인 변화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필요는 제도를 만드는 법. 법으로 제도를 만들어 정착시켜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다. 죽은 자에 대한 예우와 산 자의 권리를 조화시킨 법으로 장사에 관한 모든 것을 담았다. 이 법에 의하면 2001년 이후 설치된 분묘는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30년 연장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죽어서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후손들을 위해 자리를 비워주어야 한다.

법으로 제도와 문화를 조성해 갈 수도 있지만, 판례로도 사회를 바꿀 수 있다. 현재 대법원은 중요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앞두고 있다. 타인 소유의 땅에 설치된 분묘에 지상권 유사의 권리를 인정하는 분묘기지권에 대한 것이다. 판례는 관습법으로 분묘기지권을 인정해왔다. 지상권 유사의 권리로 보고 지료도 인정하면서, 존속기간은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고 했다. 타인의 토지위에 설치됐기에 토지소유자와 갈등의 골이 깊을 수밖에 없다. 분묘가 존속하는 한 영구의 권리로 본다면,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제한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인정해 온 분묘기지권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극단적이 결론이 아니라, 존속기간에 대한 판단만이라도 변경하기를 기대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감사,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

동아리 열전 농구동아리 공오친

공과 오랜 친구사이

2016년 연대배 아마추어 농구대회 준우승

중앙 농구동아리 공오친입니다. 저희는 1994년 정식으로 창립된 이후 농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땀 흘리며 농구를 즐기고 있습니다.

공오친은 공과 오랜 친구들의 줄임말로써, 우리 동아리는 농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운동하며 소통하기 위한 사람냄새가 나기를 지향하는 동아리입니다. 그리고 모교를 대표하는 중앙 농구동아리로써, 연세의 이름을 대외적으로 높이기 위해 외부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내려 노력하는 동아리입니다. 1994년 정식 동아리 인준을 받은 후, 꾸준한 활동을 펴 오고 있으며 농구대회 참가, 농구세미나 개최, 주 2회의 정기연습, 매 학기 MT를 주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YB와 OB가 함께하는 홈커밍 데이, 모든 공오친 사람들이 함께하고 다채로운 행사도 있는 일일호프 등 더욱 활동이 왕성해지고 있습니다.

동아리원들은 여타의 어떤 동아리보다도 가족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으며, 개인의 경조사에 동아리 회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은 물론 사소한 일에도 선·후배가 항상 함께하는 소수 정예 동아리 특유의 끈끈함을 바탕으로 동아리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왜 많은 스포츠 중에서 하필 농구일까요? 농구의 가장 큰 매력은 박진감과 재미인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스포츠보다도 전개가 빨라 경기 내내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경기를 뛰는 입장에서는 정말 매순간이 긴장되고 떨립니다. 그런 긴장감과 박진감 때문에 농구를 보게 되고 농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농구를 통해 인생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많습니다. 농구를 할 때 다섯명이 모두 득점만 하려고 해서는 절대 상대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득점을 만들어 주기 위해 누군가는 리바운드를 해야 하고 누군가는 패스를 해야 합니다. 남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팀의 승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오친의 가장 큰 장점은 선·후배간의 활발한 교류입니다. 한달에 한번 졸업한 OB형들과 모여 같이 농구를 하고 뒷풀이를 하며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고 여러 대회에 같이 출전해 농구를 합니다. 그리고 YB끼리 시합을 할 때 형들이 응원을 하러 와주는 등 정말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습니다. 선배들은 도움이 되는 조언도 많이 해주고, 농구도 많이 알려줍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같이 땀을 흘리며 노력하고 그 노력으로 만들어낸 승리의 순간, 그 순간의 기쁨을 아직도 잊지 못하셔서 동아리에 애정을 가지고 후배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습니다.

이 동아리에서 만난 좋은 사람들, 그리고 행복했던 순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상 공오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 22대 회장 성원화(경제 12입)

이달의 여동문 **김수정** (작곡 82입) 메조소프라노, 글로벌오페라단 단장, 한국입양어린이합창단 단장

"내 목소리는 하나님의 악기"

지난 여름 제주도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오페라 축제가 펼쳐졌다. 7월 14~16일에 열린 '서귀포오페라페스티벌'에 국내 최정상급 성악가들이 대거 출연한 것도 놀랍지만 푸치니의 '나비부인'과 모차르트의 '코지 판 투테(여자는 다 그래)' 두 작품을 3일 동안 4회에 걸쳐 한꺼번에 공연하는 이례적 시도에 많은 이들이 주목했다. 제주도민들에게 한여름 밤의 꿈 같은 오페라 공연을 선물한 이가 바로 서귀포오페라페스티벌 예술감독을 맡은 글로벌오페라단 단장인 김수정 동문(작곡 82입)이다.

"무엇보다 공연의 유료 관객 점유율이 95%라는 데 고무됐습니다. 공연을 보신 분들이 '문화적으로 충만함을 느꼈다'고 말씀해주실 때 저도 가슴 뿌듯했습니다. 제 고향 제주의 예술과 문화 발전을 위해 이번 공연을 준비하면서 캐스팅부터 무대 소품 하나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 동문은 애향심을 앞세웠지만 이번 서귀포오페라페스티벌은 아름다운 제주 자연을 배경으로 이탈리아 베로나오페라페스티벌에 버금가는 야외공연에 대한 기대감과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오페라 축제로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 주었다.

김 동문의 목표는 성악가가 되는 것이지만 작곡을 먼저 선택한 데에는 남다른 이유가 있었다. 성악가들은 자기 소리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론을 먼저 공부하면 소리를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작곡과 성악을 복수전공 했고 졸업 후 폴란드로 갔다. 바르샤바국립오페라단의 동양인 최초 솔리스트가 됐고, 로시니 오페라 '신데렐라'에서 주역으로 데뷔했다. 그리고 쇼팽국립음악원 오페라과 석사과정에 들어가 폴란드의 전설적인 메조소프라노였던 쇼스텍 라트코바 교수를 만났다. "저의 음악적 끼를 살려주신 분이시죠. '너는 무대에서 노래해야 한다', '너는 빛나게 노래할 수 있다'고 하신 말씀을 지금도 되새기고 있습니다. 무대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메조소프라노라는 악기로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김 동문의 활동 중 빼놓을 수 없는 게 한국입양어린이합창단이다. 김 동문이 단장으로 2006년 8명의 공개 입양 어린이들과 함께 시작한 이 합창단은 지난해 사단법인이 될 만큼 성장했다. 단순히 사회 공헌 활동이라 하기에는 단장으로서 김 동문이 이 합창단에 쏟아 붓는 열정과 노력은 상상 이상이다. 2013년에는 이탈리아 테너 유쉽 예바조프를 초청해 어린이들과 함께 공연을 하기도 했다. 김 동문은 "합창단에 언제나 기적 같은 많은 사랑이 함께했다"며 공을 미룬다. 하지만 세상은 2011년 보건복지부장관 나눔상, 2014년 입양 유공자 훈장과 국무총리 표창,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제8회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문화예술특별상으로 격려했다.

김 동문은 2002년 글로벌오페라단을 창단해 크고 작은 오페라를 제작해 무대에 올리고 있지만 여전히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다. 올 연말(11,12월)에는 '갚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입양어린이합창단 공연이 있고, 지난해 서울에서 한 '스리 메조소프라노' 공연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도 갖고 있다. 제주컨벤션센터에서 'One Love'라는 제목으로 임태경, 유열과 콘서트도 준비 중이다. "사실 저는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결국 그 일은 '노래하고', '함께 하는 일'이 되겠지요." 아름다운 사람 김수정 동문의 말이다.

글 · 김현미(신방 86입) 동아일보사 주간동아 팀장

여동창회 이야기

김선미 (신방 93입)
동아일보 편집국 차장

프랑스 아빠가 섹시하다

파리에 살기 전까지는 몰랐다. 프랑스 아빠들이 얼마나 매력적인가를. 그들은 양복을 입고 한 손엔 서류 가방, 한 손엔 아이의 손을 잡고 유치원에 온다. 오전 8시20분 유치원 문이 열리면 교실에까지 들어가 아이를 꼭 껴안아주고 일터로 간다. 그 모습이 참 정답다. 좀 과장하자면 가슴이 설렐 만큼 섹시하다. 혼자 온 아빠도 있고, 역시 출근길인 아내와 함께 온 아빠도 있다. 엄마들의 차림새가 완벽해서 나는 자못 궁금하다. '바쁜 아침에 아이 등교 준비는 누가 어떻게 시켰을까.' 9월 학기 초에는 내 아들이 다니는 동네 공립유치원 학부모 설명회에 갔더니 아빠들이 많이 참석해 교육과정에 대해 열성적으로 질문했다.

파리에서 나는 '삶의 질'에 대해 자주 생각하게 된다. 몇 년 전 각국, 특히 프랑스 중산층의 기준이 한국에 소개되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남들과 다른 맛을 내는 별미 요리를 할 줄 알고, 스포츠와 악기를 즐기고, 외국어를 구사하고, 타인을 위한 봉사를 하며, 사회적 공분에 참여할 것.' 내가 사는 아파트는 건물은 'ㄷ'자 형태라 다른 집들의 일상이 창문을 통해 종종 보이는데, 다른 건 몰라도 아빠들이 청소와 요리하는 모습은 자주 볼 수 있다. 오후 9시쯤 발코니로 나와 와인을 마시는 부부도 있다. 퇴근 후 유치원 다니는 아이와 충분히 놀아주고 아이를 재운 뒤 부부가 둘만의 시간을 갖는다고 한다. 나는, 남편은, 아이들은 한국에서 그 시간에 각각 어디에서 무얼 했던가.

프랑스는 199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저출산 1위였으나 2012년 출산율 2.02로 저 출산을 극복했다. 프랑스 아이 10명 중 9명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짜' 공립유치원에 다닌다. 급식비와 오후 돌봄 비용만 각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으로 내면 된다. 전체 국내 총생산(GDP)의 4.7%를 출산 장려지원금으로 책정할 만큼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섰다. 또 프랑스 아빠들은 육아와 가정 일을 여자의 일이 아닌, '나의 삶'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을 생각한다. OECD가 2011년부터 매년 발표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삶의 지표인 '더 나은 삶 지수(BLI·Better Life Index)'의 올해 조사 결과(5월)에 따르면 조사 대상 38개국 중 한국은 28위였다. 그중 공동체, 환경(각각 37위), 일과 삶의 균형, 삶의 만족(각각 36위) 등의 항목은 최하위 수준이었다. 특히 우리나라 어린이가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하루 평균 48분으로 회원국 중 꼴찌였다. 프랑스 아빠 같은 한국 아빠들이 많아지려면 정부와 기업, 사회가 함께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의 만족도는 계속 낮을 수밖에 없다.

사랑아이여성의원

시험관아기
자기난자은행
착상전유전진단
습관성 유산

조정현 원장
(80졸)

원형재 원장
(97졸)

김미경 원장
(차의대1회졸)

난임부부를 위한 특별한 진료가 있는 사랑아이여성의원입니다.

사랑아이 여성의원 IVF Center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69, 애플타워 3층 / Tel. 02-419-7501
종합운동장역 2호선/9호선 9번 출구
www.sarangi.co.kr

2016 정기 연고전 이모저모

개막식에서 김용학 총장, 김석수 법인 이사장, 박삼구 회장, 박갑철 연세체육회장, 총동문회 김태환 · 박창일 상임부회장, 이훈규 수석부회장, 홍복기 법인본부장(왼쪽부터) 등이 학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 87학번 동문들이 후배들을 격려하기 위해 목동운동장에 띄운 에드벌룬

이건 아닙니다!

▲ 사진 속에서 보듯 '연세대학교 교무위원석'이란 플래카드 앞에 빈자리가 많았다. 옆자리와는 대조적이었다. 주말을 맞아 많은 동문들이 응원을 위해 목동운동장을 찾았다. 자리가 부족한 상황인데 3백 명이 앉을 수 있는 교무위원석은 그야말로 텅 비어 있었다. 교무위원들은 본부석 옆에 이미 자리하고 있었다. 빈 좌석은 ROTC 학생들이 줄을 치고 막고 있었다. 동문들이 앉으려고 하자 일부 교직원과 학생들이 제지했고, 가족과 함께 앉아 있던 한 원로 동문이 쫓겨나듯 일어나야 했다. 그러다 원로 동문은 계단에서 넘어져 병원에 실려 갔다. 동문들 사이에서는 "언제부터 연세가 교무위원 대학이 됐냐"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빈 좌석은 럭비 경기 80분 내내 이어졌다. 모교는 발전기금 모금에만 신경 쓰지 말고 동문들에 대한 배려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쓴소리도 들렸다.

경기가 시작되자 학생들이 목소리 높여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때만 해도 좋았는데…

간발의 차로 벗어난 아쉬운 헤딩슛.

농구부의 철벽수비.

럭비부가 승리 후 동문석을 향해 큰 절을 하고 있다.

골인? 아쉽지만 퍽은 골대를 외면했다.

◀ 폐막제 교문 앞에서~ 후배들에게 맥주와 안주를 준비해 나눠주고 있는 81~87학번 동문들.

▼ 응원단과 총장을 비롯한 교무위원들이 단상에 올라 학생들과 함께 신나게 응원을 하고 있다.

연고전 둘째 날, 우리때는 다 이겼다는 84~87학번 동문응원단이 뜨거운 응원을 펼치고 있다.

손연재 선수가 농구장에서 응원을 하고 있다.

모든 것이 바뀌었다
변화, 말리부로부터.
3오 6349
고출력 터보엔진 라인업(1.5터보 & 2.0터보)
시선을 압도하는 스포츠쿠페형 디자인
ALL NEW MALIBU
FIND NEW ROADS
CHEVROLET
한국지엠 고객센터 080-3000-5000 www.chevrolet.co.kr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1.5 TURBO 기솔린(16"&17"타이어): 복합 13.0km/ℓ (도심 11.4km/ℓ, 고속도로 15.5km/ℓ) CO2 배출량: 131g/km / 배기량: 1,490cc / 공차중량: 1,400kg / 자동 6단(3등급) • 1.5 TURBO 기솔린(19"타이어): 복합 12.5km/ℓ (도심 11.1km/ℓ, 고속도로 14.7km/ℓ) / CO2 배출량: 136g/km / 배기량: 1,490cc / 공차중량: 1,420kg / 자동 6단(3등급) • 2.0 TURBO 기솔린: 복합 10.8km/ℓ (도심 9.4km/ℓ, 고속도로 13.2km/ℓ) / CO2 배출량: 160g/km / 배기량: 1,998cc / 공차중량: 1,470kg / 자동 6단(4등급) ※해당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 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김효은 (정외 86입) 주세네갈 대사

현 정부 첫 번째이자 유일한 여성 대사

아프리카 대륙의 제일 서쪽에 위치한 세네갈은 대서양의 풍부한 수자원과 최근 발견된 해저가스 및 석유로 인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곳에 우리나라를 대표해 4월부터 김효은(정외 86입) 대사가 파견되어 있다. 현 정부 첫 여성 대사인 김효은 대사를 서면으로 만났다.

명예로운 직책에 무거운 책임감 느껴

김효은 동문은 1992년 외무고시에 합격한 후 기후변화환경과장, OECD 참사관 등을 역임했고,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기획정책국장으로 활동했다.

"외교관이 된지 올해가 24년째입니다. 그동안 많이 받은 질문 중 하나가 언제 대사가 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자국을 대표해 외국에서 국가원수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대사'가 그만큼 중요하고 명예로운 직책이라는 반증이겠지요. 감사한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동시에 현 정부의 첫 번째이자 유일한 여성 대사이다보니 본의 아니게 주목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부담스러운 게 솔직한 고백입니다만 더 잘하라는 격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네갈은 아프리카 민주주의의 희망

우리에게 세네갈은 낯선 나라이다. 김효은 대사는 세네갈에 대해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이자 서아프리카의 중심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세네갈은 2002년 월드컵에서 프랑스를 꺾은 나라, 그리고 최근에는 갈치가 풍부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60년 프랑스에서 독립한 세네갈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과 달리 한 번도 쿠데타나 군사정변을 겪지 않고 선거를 통해 정권이 이양된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세네갈을 '아프리카 민주주의의 희망'이라고 일컫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대서양을 바라보며 7백km에 이르는 해안선을 따라 아름다운 풍광과 풍부한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서아프리카에서는 가장 시원한 기후를 자랑합니다. 안정된 정치체제를 바탕으로 최근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하면서, 불어권 서아프리카의 경제, 교육, 문화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서아프리카의 관문이자 전초기지

세네갈은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교육받은 인재들이 많아 외국기업들이 서아프리카의 관문이자 전초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김효은 대사는 과격 이슬람 테러 세력으로부터 아프리카 대륙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라고 강조했다.

"최근 세네갈이 특히 국방력 증강과 미국 및 유럽 국가들과의 안보협력 강화에 노력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극단주의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정착이 필수적인데, 세네갈은 이미 안정된 민주주의 체제를 이룩하고 있어, 조속히 경제 성장도 이룩하도록 국제사회가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세네갈이 따라가야 할 모델

민주주의 정착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뤄낸 우리나라는 저개발 국가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있다.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이 2015년 6월 방한한 이후 우리나라는 세네갈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젊고 미국에서 다국적 기업에 근무한 경험을 가진 마키 살 대통령은 한국을 세네갈이 따라가야 할 모델로 설정했습니다. 한국과 농업 및 농촌개발, 정보통신, 보건, 교육, 수산, 사회 인프라 구축 등에서 적극 협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세네갈은 2016년부터 한국공적개발원조(ODA) 중점 협력국으로 지정되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 사업을 비롯한 농촌 개발, 농업 작물 다변화 및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 식수 개발, 모자보건센터 설립, 초등학교 교과서 제작, 고등 직업훈련원 설립, 항만 터미널과 냉동 창고 설립 등의 사업들이 이미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30여 명의 한국국제협력단(KOICA) 봉사단원들이 파견되어, 교육, 보건, 농업 등 분야에서 기여하고 있습니다."

김효은 대사(가운데)가 모자보건센터 개소식에서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 세네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세네갈 친선협회가 최근 발족했다. 세네갈에서도 한국을 배우기 위해 젊은 정치인들과 대학생들이 세네갈·한국 우호협회를 만들고 한국처럼 경제성장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

"세네갈은 한국을 닮고 싶고, 본받아야 할 나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세네갈 젊은이들은 한국이 이룩한 기적 같은 경제 성장, 세계를 휩쓰는 K-POP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진지하게 대화해 보면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할 수 있다'는 정신, 높은 교육열, 부지런함과 책임감, 가족을 중시하고 윗사람을 공경하는 태도 등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인의 정신을 더 배우고 싶어 합니다."

한국의 적극적인 투자 희망

김효은 대사는 세네갈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캔참치로 유명한 동원산업이 대표적이라며, 세네갈은 보다 많은 한국기업이 서아프리카라는 큰 시장을 바라보고 투자해주길 희망한다고 했다. 그리고 프랑스 식민지 영향으로 불어가 공용어이자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며, 서아프리카 진출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불어 구사력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세네갈은 최근 55개 다국적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아프리카에서 기업하기 좋은 5개 나라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아프리카에서 3번째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했습니다. 급격히 변화하는 세네갈은 도전과 혁신 정신을 가진 한국 기업과 한국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세네갈에는 약 2백여 명의 교민들이 수산업과 가발업, 잡화 및 문구, 사진, 요식업, 보석 산업 등에 진출해 있다. 한인사회 규모가 작다보니 연세 동문 모임은 없다.

"한인사회에 대한 세네갈 정부의 평가가 높아 교민들이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세네갈 내에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카르 한인회는 매년 2회 한인의 날 행사도 개최하며, 한인사회 권익 신장에 힘쓰고 있습니다. 대사관은 한인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사관 내에 도서관을 운영하며 한글학교를 지원하고, 주재국 주요 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한인 사회의 애로사항을 적극 제기해 교민들이 안전하고 우호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게 도전한 외교관의 길

김효은 동문은 중학교 때부터 외교관의 꿈을 가졌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백양로에 들어섰지만 외무고시 준비는 조금 늦게 시작했다.

"대학교 1학년 때 외무고시를 붙은 선배들이 주관한 외무고시 설명회에 갔다가 얼마나 공부할 양이 많던지 그만 기가 죽어서 돌아왔습니다. 더구나 1986년과 1987년 모교는 민주화 운동의 중심지였습니다. 매캐한 최루탄 냄새를 맡으며 등교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외무고시 준비를 차일피일 미루며, 마치 방학숙제를 미뤄놓고 놀면서 찜찜해하는 초등학생처럼 지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목표를 정하고 정진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삶이 얼마나 힘들고 불안한 지 그때 경험했습니다. 4학년이 되면서 마음을 정하고 외무고시 시험 준비를 시작하자, 정외과 교수님들과 선배들이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더불어 그동안 들어둔 국제법, 경제학, 서양사 등 다른 학과 교수님들의 강의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외교관이 될 수 있었던 건 모교 덕분입니다."

크고 중요한 일은 성실함이 쌓인 성과

외교관으로 보람과 힘들었을 때는 언제였냐는 질문에 김효은 대사는 매일매일이 보람 있고 힘들다고 대답했다.

"그동안 UN, APEC, WTO, 기후변화협상 등 굵직한 일들을 하면서 국익에 기여하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애써 왔습니다. 아무리 크고 중요한 일이라도 결국은 준비하는 하루하루의 성실함이 쌓여서 성과가 나타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예상치 못한 크고 작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이를 해결하면서 보람을 느끼다보면 어느새 큰일도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는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김효은 동문은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청춘, 국제기구에 거침없이 도전하라〉, 〈외교관은 국가 대표 멀티플레이어〉를 출간하며 후배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고 싶어 하는 국제기구의 직위와 관련된 경험을 많이 쌓는 것입니다. 막연히 국제기구 근무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느 국제기구의 어떤 일을 하는 자리에 가고 싶은지 마음을 정하고, 그와 관련된 인턴십이나 컨설턴트 등을 통해 사전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효은 대사는 모교에서 받은 것을 후배들에게 돌려주는 선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저는 연세로부터 받은 것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도록,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는 선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외과 86학번은 뜻있는 친구들이 십시일반으로 참여해 연정86 장학금을 만들어 후배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교와 후배들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 동문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박원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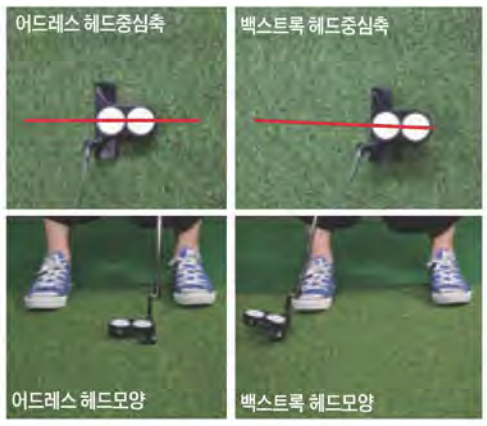
연세 골프 · 사이언스 ⑳

퍼팅에 대한 이해(2)

최송이 (체교 04입)
국가대표 상비군 코치
모교 골프 · 사이언스 실장

퍼팅은 108mm 홀에 공을 넣어야하기에 높은 정확성을 요구한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일관된 스트록은 퍼팅을 수행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선수들은 스트록 훈련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도구에서 연습하기도 하고 목표에 일직선을 긋고 숏퍼팅 연습을 하기도 한다. 일관된 스트록은 일정한 리듬과 헤드모양이 중요하다.

스트록에서 백스트록, 다운스트록이 일직선으로 다녀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 기준이 어떠한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종종 있다. 일직선으로 스트록이 다녀야 한다는 것은 퍼터 중심축이 일직선으로 다녀야한다는 것이며 퍼터 전체가 일직선으로 다닌다는 것이 아니다. 중심축이 일직선으로 백스트록을 하면 퍼터 헤드의 모양은 살짝 엎어진 것처럼 보이고 손의 위치는 어드레스 위치에서 백스트록 방향으로 조금 이동해 손의 위치는 헤드의 움직임보다 현저히 적어야 한다. 하지만 일직선으로 빼야한다는 부분을 잘못이해하면 퍼터 자체를 일직선으로 빼게 되고 이를 위해 손도 헤드가 움직이는 만큼 과도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된다. 백스트록 시 손이 과도하게 움직인다는 것은 결국 스트록 자체에 흔들림이 생기고 정확한 컨택과 일관성이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백스트록에 흔들림이 생긴다면 롱퍼팅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 힘으로 거리와 방향을 컨트롤하게 되어 길고 짧은 들쑥날쑥한 롱퍼팅으로 그린 플레이가 어려워지게 된다. 헤드의 중심축이 일직선으로 빠지도록 연습해보길 바란다.



동문 CEO 탐방 (34)

박래현(경영 03입) 바람 대표, 박지영(응통 04입) 바람 부대표

창업 2년 만에 매출 150억 달성

2014년 5월 창업, 2년 만에 매출 1백50억 달성, 서른셋 젊은 청년 사업가들의 화려한 데뷔다!

중국에서 '역직구' 붐이 일때, 중국 온라인쇼핑몰에 국내 화장품을 소개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박래현(경영 03입·사진 오른쪽) 바람 대표, 박지영(응통 04입·사진 왼쪽) 부대표는 성공 비결을 묻자, "성공은 아직…, 지금도 위기이고, 위기가 없었던 순간이 없었다"고 말한다.

(주)바람은 중국의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알리바바 티몰', 1위 소셜커머스 '웨이핀후이', 최대 화장품 쇼핑몰 '쥐메이' 등과 제휴해 '3CE', '투쿨포스쿨' 등 한국 브랜드를 선보이고 있다. (주)바람은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 영업부서이자 중국 구매팀 MD의 역할을 대신해준다.

삼양사에서 유럽, 인도, 중국 등 다양한 해외 시장을 개발해 온 박래현 동문, 삼성물산에서 중동지역 영업담당자로 놀랄만한 매출 신기록을 세운 박지영 동문, 대기업에서 유통 전문가로 경력을 쌓은 그들이 만나 탄생한 '바람'은 한류를 일으키는 돌풍이 되겠다는 각오다.

성공 요인은 중국 온라인 커머스의 빠른 진화에 발빠르게 선점하고, 젊은 감각으로 최신 트렌드에 맞는 전략과 뛰어난 정보력, 무엇보다 진정성, 정직, 성실, 관계사와 합리적인 계약이 주요했다. "보통 유통업체들이 과장, 허위, 무리한 수익요구, 브랜드사에 부담을 지우고 압박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우리는 정직, 진정성으로 그들과 친구가 되고 상생의 관계가 됐죠. 브랜드사에서 저희 매력에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질 못한다고 합니다"며 웃는다. '어벤져스'라고 소개하는 8인의 직원들이 큰 자랑이다.

"소비자 니즈는 계속 바뀌고, 온라인 커머스도 진화하고 있으며, 미디어 커머스는 지금 초창기라 그 변화에 앞서고자 고민이 많습니다. 겟잇뷰티 중국 방송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방송사업부서를 신설해 직접 기획, 연출을 맡아 브랜드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있죠. 생방송 당일 평균 매출액의 10배 이상, 하루 3천만원 이상 매출을 올리기도 합니다."

박지영 동문이 본 박래현 대표는 '낮은 위치에서 직원들을 대하며,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분', 박래현 동문이 본 박지영 부대표는 '모든 CEO가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무역왕, 전사, 전투력이 상상초월, 타고난 상사맨'이란다.

앞으로 계획은 트랜드를 더욱 연구해 선점하고 리드하는 업체가 되는 것, "중국 정책 변경으로 4월 매출이 갑자기 10% 밑으로 떨어져 놀랐어요. 특정 국가에 영향 받지 않는 기업, 전 세계 국가에서 활동하는 기업을 만들고 싶습니다." 박래현·박지영 동문은 연세인이라는 그 자체가 창업과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며, 업계에서 존경해 마지않는 서경배 선배님과 김창수 선배님을 꼭 만나 뵙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많은 동문 선배님들로부터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문 선배님들은 언제 어디서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김지혜 기자

동문들 어떻게 지내고 있나

동문소식을 보내주세요

동문회보 '동문 동정' 코너를 통해 다양한 동문들의 소식을 보도해 드립니다.
게재를 희망하는 동문들은 총동문회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관련 자료를 매월 25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2-365-0631~4, Fax) 02-365-0635, E-mail) ckpark70@yonsei.ac.kr(박차경)

승진 • 이동

▲김동국(정외 84입)=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과장급)
▲김민석(금속 86입)=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원회수연구센터장
▲김상국(행정 91입)=통일부 공동체기반조성국 북한인권과장
▲김장훈(행정원 12입)=국가보훈처 강원동부보훈지청장
▲김정하(식영 92입)=중앙대병원 가정의학과장
▲김준신(경영원 00입)=한국맥널티 커피사업부 CEO
▲노수철(법학 85입)=국방부 법무관리관
▲박근태(사학 73입)=CJ대한통운 대표이사 겸 중국본사 공동대표
▲박종선(교육원 05입)=한국정보화진흥원 기획조정팀장
▲박진홍(경제 87입)=SBS 시사교양본부 교양3CP
▲백종삼(의학 87입)=상계백병원 기획실 실장
▲신형관(국문 89입)=CJ E&M 엠넷콘텐츠부문장
▲안석배(사회 87입)=조선일보 논설위원
▲이경식(법무원 06입)=법무부 수원구치소장
▲이도훈(경제 81입)=청와대 대통령외교비서관
▲이재필(공학원 93입)=KBS 춘천방송총국장
▲이창률(의학 92입)=한림대의료원 한림대춘천성심병원 진료부원장
▲이한종(경제원 01입)=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한기석(행정 85입)=서울경제TV 금융증권부장

CJ주식회사
▲양종윤(법학 91입)=법무실 법무1담당 상무
▲이동박(식품생물 91입)=미래경영연구원 산업1담당 상무

강북삼성병원
▲김흥대(대학원 85입)=진료부원장
▲신현철(의학 82입)=응급의료센터장

교육부
▲구영실(영문 92입)=이러닝과장
▲이승복(교육 85입)=세종특별자치시 부교육감

기획재정부
▲최재영(경영 87입)=국토교통예산과장(부이사관)
▲정정훈(경제 85입)=조세정책과장(부이사관)

숙명여대
▲김미숙(기악 77입)=학생처장
▲박은진(영문 81입)=특수대학원장
▲이춘실(도서관 71입)=문과대학장

아주대
▲유문숙(간호 75입)=간호대학장
▲주일로(의학 81입)=의과대학장 겸 의학전문대학원장

연세의료원
▲김용욱(의학 88입)=기획조정실 기획 제1부실장
▲김원주(의학 84입)=대외협력처 발전기금사무국 발전기금강남부국장
▲김창성(치의학 88입)=의과학연구처 연구진흥3부처장
▲김현창(의학 90입)=의과학연구처 산학융복합의료센터2부소장
▲박진용(의학 77입)=국제처 의료선교센터 소장
▲방승민(의학 90입)=의과학연구처 연구진흥1부처장
▲송영구(의학 83입)=의과학연구처 연구진흥2부처장
▲윤미진(의학 87입)=의과학연구처 산학융복합의료센터3부소장
▲이은(의학 91입)=의과학연구처 연구지원부처장
▲이유미(의학 90입)=대외협력처 발전기금사무국 국장
▲임준석(의학 88입)=의과학연구처 산학융복합의료센터1부소장
▲정영수(치의학 89입)=기획조정실 기획 제2부실장
▲최승호(의학 90입)=대외협력처 미디어홍보센터 부소장

의과대학
▲고홍(생명공학 92입)=교무부장
▲구자승(의학 94입)=교학부장
▲김창오(의학 90입)=임상연구지원부장
▲김창훈(의학 86입)=기도점액연구소장
▲노재훈(의학 72입)=산업보건연구소장
▲박윤길(의학 84입)=재활의학교실주임교수
▲신전수(의학 80입)=의생명과학부장
▲안철우(의학 85입)=혈관대사연구소장
▲여인석(의학 84입)=의학사연구소장
▲윤미진(의학 87입)=핵의학교실주임교수
▲이형근(의학 88입)=강남부장
▲정재호(의학 89입)=연구정책개발부장
▲정준원(의학 88입)=학생부장
▲정현수(의학 89입)=교육부장
▲최동훈(의학 82입)=심혈관연구소장

치과대학
▲김광만(치의학 78입)=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주임교수
▲김백일(치의학 88입)=예방치과학교실주임교수
▲김의성(치의학 84입)=보존과학교실주임교수 겸 구강과학연구소장
▲김형준(치의학 78입)=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주임교수
▲심준성(치의학 85입)=보철과학교실주임교수
▲안형준(치의학 88입)=구강내과학교실주임교수
▲이기준(치의학 88입)=교정과학교실주임교수
▲정의원(치의학 92입)=치주과학교실주임교수
▲최형준(치의학 82입)=소아치과학교실주임교수
▲한상선(치의학 90입)=구강악안면방사선과학교실주임교수
▲황충주(치의학 78입)=두개안면기형연구소장

간호대학
▲김상희(간호 90입)=임상간호과학과장
▲오의금(간호 82입)=김모임간호학연구소장
▲이현경(간호 86입)=간호환경시스템학과장

간호대학원
▲김인숙(간호 72입)=간호관리와교육전공지도교수
▲김희순(간호 73입)=아동간호전공지도교수
▲오의금(간호 82입)=임상간호전공지도교수

세브란스병원
▲구남수(의학 96입)=진료협력센터차장
▲김긍년(의학 83입)=신경외과장
▲김순일(의학 75입)=동정맥루센터 소장
▲김승민(의학 73입)=뇌신경센터소장
▲김장환(의학 89입)=가정간호사업소장
▲김창경(간호 83입)=간호국 수석부장
▲김창오(의학 90입)=교육수련부 수련1차장
▲김현옥(의학 76입)=혈액원장
▲박종철(생화학 83입)=의료기술품질평가센터장
▲심상열(의학 67입)=세브란스체크업의원 원장
▲안중배(의학 84입)=임상시험센터소장
▲원종욱(의학 83입)=세브란스산업보건의원부소장
▲윤미진(의학 87입)=방사선 안전관리의사
▲윤미진(의학 87입)=핵의학과장
▲윤진숙(의학 94입)=적정진료관리실 부실장
▲이용찬(의학 83입)=소화기내과장
▲이은직(대학원 86입)=뇌하수체종양전문클리닉 팀장
▲이진우(의학 82입)=임상연구관리실장
▲이환모(의학 77입)=척추류마티스통증센터 소장
▲장혁재(의학 88입)=재난대응의료안전망사업단 라이프태그사업소장
▲정현수(의학 89입)=재난대응의료안전망사업단 재난의료교육센터소장
▲최종혁(의학 80입)=관절스포츠재활센터 소장
▲한광협(의학 73입)=간센터 소장
▲허경(의학 78입)=수면건강센터 소장

강남세브란스병원
▲백승혁(의학 90입)=기획관리실 기획부실장
▲백승혁(의학 90입)=대장항문외과장 겸 암병원 대장암센터소장
▲서상현(의학 88입)=기획관리실 의료정

보부실장
▲송영구(의학 83입)=임상연구관리실장
▲유영훈(의학 85입)=핵의학과장
▲이광훈(의학 88입)=암병원 간암센터소장
▲이성수(의학 89입)=적정진료관리실 부실장
▲이영목(의학 91입·본회 이사)=교육수련부 차장

치과대학병원

▲김의성(치의학 84입)=보존과장
▲김형준(치의학 85입)=구강악안면외과장
▲박영범(치의학 89입)=중앙기공실장
▲박원서(치의학 91입)=원내생진료실장
▲심준성(치의학 85입)=보철과장
▲안형준(치의학 88입)=구강내과장
▲육종인(치의학 81입)=인체구강유래자원은행장
▲이기준(치의학 88입)=교정과장
▲정의원(치의학 92입)=치주과장
▲최형준(치의학 82입)=소아치과장
▲한상선(치의학 90입)=구강악안면방사선과장

심장혈관병원

▲곽영란(의학 83입)=진료부장 겸 마취통증의학과장
▲윤영남(의학 90입)=심장혈관외과장

선임·선출

▲김시욱(생물 78입)=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인 김 동문이 최근 우리나라 생물공학 분야의 대표학회인 한국생물공학회 수석 부회장에 당선됐다.
▲김옥진(경영 84입)=본회 출판분과 상임이사이자 GE코리아 전무인 김 동문이 9월 19일 GE파워시스템즈코리아 초대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노세영(연신원 80입)=서울신학대학교 교수인 노 동문이 9월 2일 서울신학대학교 성결인의집에서 제18대 신임 총장에 취임했다.
▲박종숙(대학원 90입)=전주 중부교회 목사인 박 동문이 9월 1일 한일장신대 교내 예배당에서 열린 개교 94주년 기념식에서 한일장신대 이사장 취임했다.
▲박창일(의학 66입)=본회 상임부회장이자 모교 법인 이사이며 의과대학 명예 교수인 박 동문이 9월 1일 명지춘혜병원 명예 원장에 임명됐다.
▲신용한(경영 88입)=본회 조직분과 상임이사이자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인 신 동문이 최근 서원대 경영학과 석좌교수에 임용됐다.
▲신헌철(경영원 88입)=대한펜싱협회 회장인 신 동문이 8월 30일 송파구 방이동 SK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제32대 대한펜싱협회장 선거에서 제32대 대한펜싱협회장에 연임됐다.
▲양창호(생화학 75입)=인천대 동북아물류대학원 교수인 양 동문이 8월 26일 열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221차 이사회에서 제9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에 선임됐다.
▲유수택(행정원 92입)=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인 유 동문이 9월 12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임 상임감사에 선임됐다.
▲윤태화(경영 78입)=가천대 경영학과 교수인 윤 동문이 9월 19일 한국고용정보원 임기 2년의 비상임감사에 선임됐다.
▲이도윤(경영 83입)=전 삼성자산운용 상무인 이 동문이 9월 19일 경찰공제회 신인 CIO에 내정됐다.
▲이화순(독문 80입)=에이앤씨미디어 대표인 이 동문이 최근 2016순천만국제자연환경미술제 홍보전문위원에 위촉됐다.
▲임재헌(경영 83입)=전 한화에이스스팩 대표인 임 동문이 8월 29일 무림캐피탈 신임 대표에 선임됐다.
▲정은주(대학원 04입)=건국대병원 외과 교수인 정 동문이 9월 22일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전문가에 위촉됐다.
▲정초시(경제 73입)=충북연구원 원장인 정 동문이 최근 열린 충북연구원 임시이사회 의결을 통해 13대 원장에 연임됐다.
▲조병욱(법학 55입)=본회 부회장인 조 동문이 최근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상임고문에 선임됐다.
▲편광의(대학원 77입)=대전테크노파크 원장인 편 동문이 8월 29일 열린 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 총회 및 이사회에서 제19대 신임 회장에 선출됐다.
▲홍성희(의학 84입)=을지병원 성형외과 교수인 홍 동문이 8월 26일 열린 학교법인 을지학원 이사회에서 제6대 이사장에 선출됐다.

수상

▲김별아(국문 88입)=소설가인 김 동문이 최근 제10회 의암주논개상 수상자에 선정됐다.
▲김현석(의학 06입)=럿거스 치·의과대학원(UMDNJ) 내과 레지던트 2년차인 김 동문이 최근 미 최대 규모의 소화기 관련 국제학회인 미 소화기학회주간(DDW)에서 논문 '미국 내 글루텐프리 다이어트와 셀리악병의 유병률 관계(Time Trends in the Prevalence of Celiac Disease and Gluten-Free Diet in the US Population)'를 발표해 '젊은 연구자상'을 수상했다.
▲안호원(연신원 91입)=본회 언론분과 상임이사이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교육위원인 안 동문이 8월 27일 사단법인 한국문화교육협회로부터 청소년관련, 교육, 문화, 예술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16년 대한민국청소년대상'인 '지도자 상'을 수상했다.
▲유인목(언홍원 92입)=본회 부회장이자 테크노빌리지 대표이사인 유 동문이 9월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7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에서 기술혁신분야 기업인부문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이승주(상학 45입)=국제텍 회장인 이 동문이 9월 20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9회 서상돈상 시상식에서 '서상돈상'을 수상했다.
▲전우택(의학 79입)=모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과 교수인 전 동문이 의료전문지 후생신보에 '의학교육의 Ifo'라는 기고문을 연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홍명기(의학 80입)=모교 의과대학 교수인 홍 동문이 9월 27일 제14회 화이자의학상 기초의학상 수상자에 선정됐다.

행사·개업·이전

▲김경원(경제 77입)=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인 김 동문이 9월 4일 서울 양재동 The-K 호텔 서울에서 '제15회 국제에너지기구 지역냉난방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박관용(언홍원 98입)=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인 박 동문이 9월 7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을 초청해 '사드 배치 논란과 한·중 관계'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신희석(정외 64입)=아태정책연구원 이사장인 신 동문이 9월 22일 서울 연세동문회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창립 20주년 기념 축하 리셉션 행사'를 개최했다.
▲이창유(교육원 86입)=윤헌철학연구원장인 이 동문이 10월부터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14 (문정동) M state C동 503호 사무실을 이전해 동양철학과 관련한 상담과 강의를 진행한다(02-541-2924).
▲최열(언홍원 96입)=환경재단 대표인 최 동문이 9월 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등 3당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다음 침공은 어디?〉 특별 시사회를 개최했다.
▲홍복기(법학 71입)=본회 부회장이자 한일법학회 회장(모교 교수·법인본부장)인 홍 동문이 8월 30일 모교 국제학술회의장에서 한국경제법학회와 공동으로 '한국 및 일본 자본시장법제의 최근 동향과 대응방안' 이라는 주제로 2016년 공동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화촉

▲박범섭(공학원 93입)=삼성전자 수석부장인 박 동문의 장남 재환 군이 9월 25일 더블유스퀘어 8층에서 화촉을 밝혔다.
▲심희삼(전기 56입)=본회 이사이자 (주)대훈 회장인 심 동문의 장남 성훈(물리 91입) 군이 9월 24일 고려대학교 교우회관에서 화촉을 밝혔다.

부음

▲강길부(경영원 97입)=새누리당 국회의원인 강 동문이 9월 20일 모친상을 당했다.
▲길종섭(언홍원 05입)=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인 길 동문이 9월 19일 모친상을 당했다.
▲김재열(경제원 09입)=본회 벤처기업분과 상임이사이자 아이파워 대표인 김 동문이 8월 24일 모친상을 당했다.
▲김주병(신학 46입)=대한성서공회 명예총무인 김 동문이 9월 13일 미국 LA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김춘배(대학원 88입)=모교 원주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인 김 동문이 9월 8일 모친상을 당했다.
▲김현희(치의학 90입)=고운미소치과 원장인 김 동문이 9월 9일 부친상을 당했다. 백석기 동문(치의학 89입·고운미소치과 원장)·이창일 동문(의학 90입·연세필정신과 원장) 빙부상.
▲김홍채(경영원 11입)=트레이스 부사장인 김 동문이 9월 17일 모친상을 당했다.
▲남상만(경영 70입)=서울시관광협회장인 남 동문이 9월 3일 모친상을 당했다.
▲박길주(기악 62입)=비지니스컨설턴트 대표이 박 동문이 8월 31일 남편상을 당했다.
▲박승한(물리 78입)=모교 물리학과 교수인 박 동문이 9월 21일 빙부상을 당했다.
▲박웅철(성악 91입)=모교 음악대학 강사인 박 동문이 9월 17일 빙부상을 당했다.
▲백승호(경영원 74입)·승국(언홍원 99입)=세리정보기술 대표이사인 백승호 동문과 전 연세대 홍보팀장인 백승국 동문이 9월 4일 모친상을 당했다.
▲신상진(의학 87입)=이대목동병원 정형외과 교수인 신 동문이 9월 17일 부친상을 당했다.
▲신수용(경영 79입)·영재(법학 85입)=한국은행 인사경영국 열린상담반 반장인 신수용 동문과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변호사인 신영재 동문이 9월 18일 모친상을 당했다. 신영수 동문(법학 86입·본회 금융분과 상임이사·법무법인 율촌 파트너변호사) 빙모상.
▲오승원(경영 83입)=금융감독원 특수은행국장인 오 동문이 9월 15일 부친상을 당했다.
▲유승석(식공 85입)=세종대 교수인 유 동문이 9월 18일 부친상을 당했다.
▲이기길(사학 76입)=조선대 역사문화학과 교수인 이 동문이 9월 14일 빙모상을 당했다.
▲이성준(경영원 78입)=우송대 교수인 이 동문이 9월 4일 부친상을 당했다.
▲이충국(대학원 72입)=전 모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인 이 동문이 9월 20일 부친상을 당했다.
▲임헌관(대학원 05입)=연세크라운 비뇨기과 원장인 임 동문이 9월 4일 모친상을 당했다.
▲전병율(의학 79입)=본회 보건복지분과 상임이사이자 차병원그룹 대외협력본부장인 전 동문이 9월 23일 부친상을 당했다.
▲조영훈(지질 75입)=본회 상임부회장이자 (주)경원엔지니어링 부사장인 조 동문이 9월 8일 모친상을 당했다.
▲최광일(법학 61입)=전 서울신문 편집국장인 최 동문이 9월 23일 모친상을 당했다.
▲표영봉(법무원 08입)=IB&AA엔터프라이즈 이사인 표 동문이 9월 18일 모친상을 당했다.
▲함태호(경영원 65입)=오뚜기 창업주이자 명예 회장인 함 동문이 9월 12일 별세했다.
▲현우식(신학 86입)=호서대 교수인 현 동문이 9월 22일 모친상을 당했다.

· 연세대학교 동문회관의 이익금은 전액 교육사업에 쓰여집니다.

연세인의 쉼터가 되어주는 늘 푸른 큰나무 –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결혼식 및 가족모임은 물론 학술행사와 동문행사까지

●연세대학교 동문회관은 동문이 아닌 일반인도 환영합니다.
●평일(월~목)에 결혼하시는 분들께는 특전을 드립니다.

·예약문의 : www.ysab.co.kr
·전화번호 : 2123-4760 · 팩스 : 365-6031

예식홀

대 연회장

중 연회장

소 연회장

여러분의 정성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연회비 지로와 평생회비 지로 중, 하나만 납부해 주세요 !

(무통장 입금 / 우리은행 : 214-002658-01-001, 하나은행 : 128-910003-97705 예금주 : 연세대동문회)

임원분담금 입금현황

※수석 · 상임부회장(2016.8.26~9.26) · 16년=1명 · 누계(2014.6.1~2016.9.26) · 14년=62명 · 15년=66명 · 16년=46명
※운영부회장 · 감사(2016.8.26~9.26) · 16년=1명 · 누계(2014.6.1~2016.9.26) · 14년=79명 · 15년=76명 · 16년=49명
※분과위원장(2016.8.26~9.26) · 누계(2014.6.1~2016.9.26) · 14년=11명 · 15년=15명 · 16년=11명
※상임이사 · 이사(2016.8.26~9.26) · 16년=26명 · 누계(2014.6.1~2016.9.26) · 14년=1천1백44명 · 15년=1천83명 · 16년=7백64명

28대 3차 | 수석/상임부회장

△김선희(불문 83입)

28대 3차 | 운영부회장/감사

△장미호(공학원 06입)

28대 3차 | 상임이사/이사

△김상래(정경원 05입) △김용운(보건원 99입) △김주덕(행정원 05입) △김충남(경영 63입) △문두향(행정원 97입) △민현자(의생활 82입) △배기영(행정 74입) △배성철(중문 76입) △연영흠(법무원 00입) △유승헌(의학 39입) △이명재(정외 85입) △이장원(행정 65입) △이재영(전자 77입) △이준민(물리치료 09입) △이진찬(법학 66입) △장성복(경제 69입) △정성욱(지구시스템 95입) △정영수(법학 99입) △정재정(경제원 03입) △조웅기(경영 85입) △천성우(작곡 83입) △최달식(보건원 77입) △최성락(교육원 86입) △홍진기(정외 55입) △홍진기(정외 55입) △황주홍(정외 73입)

동문회비 입금현황

※평생회비(2016.8.26~9.26)=1백6명 · 누계(1998.1.1~2016.9.26)=1만5천9백75명(46억7천3백50만원)
※연회비(2016.8.26~9.26)=1백67명(3백34만원) · 누계(2016.1.1~9.26)=5천9백75명(1억1천9백50만원)

평생회비

△강다현(경제 08입) △강민영(기악 04입) △강병근(전기전자 07입) △강신학(경제원 14입) △강형옥(아동·가족 08입) △고재현(대학원 12입) △고한열(정경원 10입) △구햇님(보건행정 07입) △권소자(교육원 14입) △권오웅(의학 67입) △김경민(경제 06입) △김담(정외 84입) △김대훈(의학 06입) △김도훈(심리 05입) △김무철(기계 74입) △김병윤(대학원 12입) △김수지(생화학 07입) △김승범(경영 69입) △김양호(보건원 08입) △김연주(화학 01입) △김영진(전기전자 05입) △김우현(IT융합공학 12입) △김이향(수학 02입) △김중기(생활원 12입) △김지영(법학 08입) △김철현(대학원 09입) △김태곤(경제원 12입) △김태균(경영 90입) △김향주(교육원 13입) △김현지(경영 10입) △김현철(경제 87입) △김형예(수학 00입) △김홍기(대학원 82입) △류훈(의학 93입) △박건우(관현악 09입) △박나래(교육원 07입) △박은진(응통 08입) △배장오(교육원 85입) △변순주(공학원 87입) △서수민(사회복지 07입) △손영리(영문 90입) △손효종(대학원 03입) △송은비(정외 05입) △송현숙(교육원 03입) △신영식(경영 80입) △신재균(행정 05입) △안영민(경제 04입) △양배준(의학 05입) △양혜미(치위생 11입) △엄금주(행정원 11입) △염승필(정경원 10입) △오윤상(전기 84입) △유성현(경영 04입) △윤용광(의학 69입) △이기훈(영문학 08입) △이병승(화공생명 10입) △이병준(의학 93입) △이석재(법학 94입) △이성수(행정원 12입) △이원섭(지질 83입) △이재연(토목 77입) △이정은(사회 07입) △이종욱(컴퓨터과학 07입) △이지아(교육원 14입) △임경택(경제원 03입) △임동규(철학 09입) △장기영(법학 06입) △장미영(작곡 73입) △장우정(간호 13입) △장하다(행정 07입) △장화익(대학원 06입) △전기홍(산업환경 93입) △전성재(법학 06입) △전주현(의학 99입) △전태규(국문 97입) △정민재(EAST ASIAN POLITICS AND CULTURE 07입) △정석일(화학 10입) △정에스더(연신원 11입) △정윤하(대학원 03입) △정철한(철학 77입) △정해춘(화공 86입) △조민규(경영 86입) △조선영(교육원 11입) △조성찬(경영 06입) △조소영(대학원 08입) △조수연(주거환경 05입) △조준영(경

제 04입) △조한용(언홍원 07입) △조형준(교육원 12입) △조훈희(연신원 11입) △주재현(식영 06입) △지덕연(경영정보 97입) △진치섭(토목 60입) △최병훈(화학 09입) △최상엽(경제 03입) △최세원(기악 01입) △최재호(교육원 98입) △최준섭(경영 06입) △최호령(법학 02입) △하원선(공학원 12입) △한보람(영문 10입) △한인숙(간호 86입) △한정희(경영 83입) △홍성우(행정원 13입) △황의철(공학원 86입) △황태연(법무원 05입)

연회비

문과대학

국문학 △하태수(66입) △황보완(63입)
중문학 △최자영(01입)
영문학 △권희진(05입) △김희정(54입) △황덕양(97입)
사학 △문성준(00입) △박동진(66입) △조희수(08입)
철학 △김남훈(70입) △안용훈(84입)

상경대학

상학 △박민순(43입) △정병열(55입) △정병욱(56입) △최영익(58입) △한종유(65입)
경제학 △김용석(83입) △류경현(74입) △백병기(64입) △심재만(85입) △이민희(00입)
응용통계학 △정경훈(69입) △허재연(00입)

경영대학

경영학 △강세종(92입) △김화중(76입) △박일호(92입) △박준영(83입) △박준용(07입) △신성호(79입) △이민(81입) △이병규(60입) △이슬(07입) △이치문(67입) △이황길(07입) △임보라(00입) △임성남(65입) △정연택(69입)

이과대학

수학 △김주영(68입) △손재범(86입)
물리학 △박민(98입) △황보신용(79입)
생화학 △이명순(83입)

공과대학

화학공학 △심건섭(67입) △정용준(63입) △한윤식(58입) △홍성훈(06입)
전기전자공학 △김용환(09입) △임태준(09입)
전기공학 △김병석(77입) △김우남(91입) △최성건(60입) △홍기운(59입)
건축공학 △이행복(82입) △정기현(65입)
토목공학 △김홍섭(80입) △박승균(65입) △이승우(64입)
기계공학 △이상윤(87입)
IT융합공학 △김우현(12입)
식품공학 △김준경(81입)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 △윤정민(09입) △최태옥(77입)
행정학 △김달(59입) △문승훈(78입) △배순철(64입) △정찬욱(73입)
사회복지학 △윤민석(96입)
사회학 △유재동(84입) △이수암(75입) △정원호(85입)

법과대학

법학 △김봉주(73입) △김성근(84입) △김태훈(55입) △신중광(81입)

음악대학

기악 △유현옥(71입) △이화진(85입) △임기욱(09입)

생활과학대학

주거환경학 △노태호(06입)
생활디자인 △정근영(01입)

교육과학대학

교육학 △강명남(59입) △고원철(73입) △한경자(60입)
체육교육학 △권태순(76입) △김지원(84입) △홍순민(05입)

의과대학

의학 △김지우(81입) △조수빈(09입)

치과대학

치의학 △박해준(82입)

간호대학

간호학 △이가영(02입) △최화순(56입)

인문예술대학

사학 △손근(90입)

과학기술대학

수학 △최영주(95입)
물리학 △이태석(82입)
화학 △김지영(85입)
생명과학 △심지혜(95입)

정경대학

행정학 △이윤형(95입)

보건과학대학

의용전자공학 △이상엽(09입)
임상병리학 △박선구(08입)
작업치료학 △방한나(01입)

원주의과대학

의학 △김진혁(06입) △김현수(82입)
간호학 △손종란(04입)

일반대학원

△김동환(02입) △오승덕(03입) △우스민(10입) △유기한(02입) △윤현숙(02입) △장재우(10입) △전혜원(08입) △최경화(97입)

연합신학대학원

△강사무엘(10입) △박형목(00입) △배은혜(00입) △손진호(07입) △임미경(09입) △장하진(09입) △추수엽(99입) △허남성(14입)

경영전문대학원

△김진규(13입) △박상훈(11입) △박성조(09입) △박윤신(94입) △오재항(11입) △윤광순(85입) △허철(97입)

교육대학원

△윤영안(90입) △임재환(76입) △최기선(06입)

행정대학원

△고영채(94입) △김기철(10입) △김정일(07입) △김진태(07입) △김진환(08입) △도재경(06입) △엄금주(11입) △윤영역(84입) △이점자(02입) △최상학(10입)

공학대학원

△강희병(98입) △박주영(76입) △사영배(09입) △신석희(87입) △전영수(77입)

언론홍보대학원

△노현송(06입) △이장협(99입) △임기완(97입) △최용선(99입)

법무대학원

△김한주(11입) △이미옥(01입) △이상수(02입) △최환철(10입)

생활환경대학원

△권재연(09입) △손은영(15입) △엄태웅(15입)

보건대학원

△김미소(12입) △김순분(09입) △김윤국(01입) △배정근(09입) △송영희(87입) △이진경(06입) △한재영(90입)

정경대학원

△김연석(00입) △박창주(06입) △신승권(12입)

보건환경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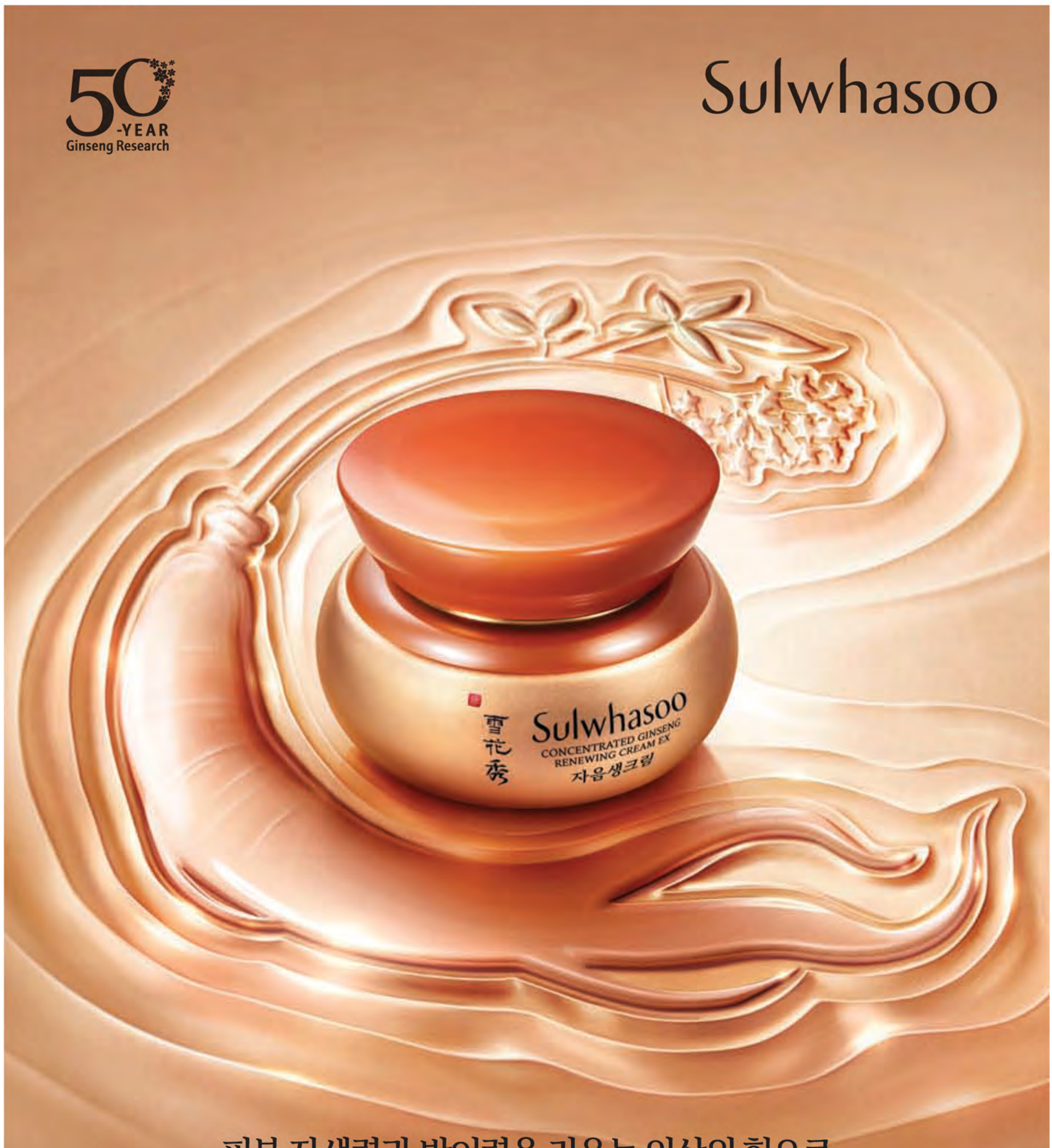
△강대성(11입) △장민경(13입)

농업개발원

△정영수(78입)

50-YEAR Ginseng Research

Sulwhasoo



피부 자생력과 방어력을 키우는 인삼의 힘으로
스스로 살아나는 피부활력을 누리다

설화수 자음생크림

천천히 변화를 겪는 피부는 어느 순간 크게 힘을 잃습니다
피부노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힘을 전하는 설화수 자음생크림
인삼 꽃의 응축된 힘으로 방어력을 강화해 피부 손상 예방에 도움을 주고 인삼 뿌리의 강력한 효능 성분으로
피부의 자생력을 높여줍니다. 더욱 강화된 인삼결정체로 스스로 살아나는 피부활력을 누리세요

• 1966년 설화수 브랜드의 모태인 ABC인삼크림이 탄생되었으며, 이후로 50년간 인삼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 유명백화점이나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 • 고객상담실 :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

(주) VL&CO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9 (02)6414-5469, 5472 www.louiscastel.com